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5. 9 + 10 vol. 135

치열했던 한여름의 무더위가 끝나고, 이제 그 햇살의 결실들이 남았습니다.

여름 벌을 이겨낸 나무에 탐스러운 과실이 열리듯, 수확은 노력과 시련 뒤에 찾아오는 선물인 듯 합니다. 늘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여유를 가져보세요.

어느새 쌓인 결실의 기쁨과 함께 몸도 마음도 모두 풍성해지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행복한 미소가 함께하는 가을을 기원합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현

김 경 현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을 보내서인지, 한결 높아진 하늘과 선선해진 가을 바람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더욱 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대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맡게 된 김경현입니다.

‘메르스’라는 국가적 난제 속에서도 슬기롭게 병원을 이끌어 간 우리 한양대학교의료원 구성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더 나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연간 스페셜 테마 ‘수술 잘 하는 병원’의 이번 호 주제는 ‘간암’입니다. 최근 우리 병원에서도 B형 간염에 의한 간암의 간이식수술을 시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 어낸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과 전문의들이 협력하는

‘다학제’적 진료와 최신 진료 기술을 도입하는 끊임없는 연구로 우리는 간암의 완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로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게 늘 희망과 미소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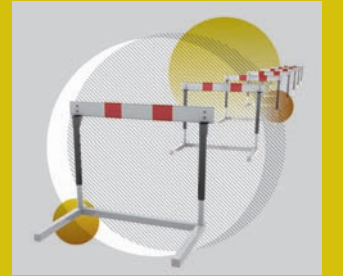
어느새 노랗고, 빨갛게 변한 나뭇잎들이 지천입니다. 피고 지고, 또 열매 맺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유난히 가을이 반가운 것은 그 계절의 풍요로움뿐 만이 아니라, 수확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명절 추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 담소를 나누며 정을 쌓을 때 마음의 풍요로움도 더 커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행복을 조용하게 비추는 한가위 밤하늘의 밝은 보름달처럼,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여러분 곁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SPECIAL THEME

수술 잘 하는 병원 ④ 간암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9+10월 호에서는 ‘수술 잘 하는 병원’ 시리즈 네 번째 순서로 간암의 치료방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에 찾아온 암을 이겨내기 위한 한양대학교의료진의 노력과 함께 비수술적 치료로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최근의 성과들을 소개합니다.



- 02 즐거운 편지 | 행복한 미소가 함께하는 가을을 기원합니다
-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김연환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
- 08 다이내믹 한양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자전거동호회 ‘라온’

SPECIAL THEME

수술 잘 하는 병원 ④ 간암

- 12 각 분야의 협력 진료체계로 완치에 도전하다 | ① 소화기내과
- 14 절제와 이식, 효과적 간암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다 | ② 외과
- 16 영상을 활용한 비수술치료로 한계를 극복하다 | ③ 영상의학과



- 18 Hanyang Topic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신축 착공식
- 22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드라마 〈여왕의 꽃〉 장용의 심혈관질환
- 24 베스트 파트너 | 삼성정형외과
- 26 Dr. Opera |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오페라 〈오르페오〉
- 28 Dr. Movie | 메르스의 공포가 드러낸 공동체의 민낯
- 30 예술과 의술의 만남 |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 홍막염
- 32 고마운 당신에게 | 늘 따뜻함이 느껴지는 신정훈 교수님께
- 34 Hanyang News | 한양대학교의료원, 신임 원장단 인사 외
- 37 언론 속 한양인
- 38 발전기금
- 42 문화캘린더
- 43 외래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5년 9월 1일 통권 135호 발행인 김경현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http://www.hyumc.com> 기획·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290-9532

한 줄기 희망을 재건하는 사람

김연환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

다쳐서 생긴 상처나 사고로 결손된 신체 복원, 선천적 기형을 가진 환자들의 신체 모양과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성형' 분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신체 부위를 담당해야 하는 광범위하고 실력을 요하는 미세수술 분야다. 몸에 퍼져있는 미세한 혈관들을 찾아 생명의 끈을 잇고, 손상된 부위에 피부를 이식해 신체를 재건(Reconstruction)하는 일에 몰두하는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는 자신의 손길로 삶의 희망을 얻는 환자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며, 재건성형 분야가 자신의 천직이라 확신한다.

글. 이지연 사진. 정준택





———— ‘미세’한 세계를 향한 ‘최고’라는 꿈

파란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낀 김연환 교수가 수술실 밖으로 나왔다. 4시간에 걸친 하지재건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수술이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1시간가량이 더 걸려 지칠 법한데도 그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마치 42.195km의 풀코스를 완주하고 결승점에 돌아온 마라토너처럼 숨은 가쁘지만, 행복함이 만연한 모습이었다.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자가조직을 이식한 재건술이었는데요. 성형외과 분야에서 가장 큰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조직을 받아서 이식하지 않고, 환자의 신체 중 일부를 떼어 다리 쪽에 이식한 수술로 피판술 또는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날 진행된 수술은 어렸을 때 사고로 무릎 아래쪽이 절단된 환자가 의족을 착용하기 수월하도록, 옆구리의 살을 떼어 튀어나온 뼈를 감싸는 수술이었다. 김연환 교수는 이식을 위해 떼어낸 신체 부위의 미세혈관을 다리 쪽의 혈관과 연결해야 하기에, 수술용 현미경을 사용하고 초고도의 집중 상태가 필요했음을 덧붙였다.

“미세수술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 동맥에서 나와 피부로 올라오는 아주 가는 미세혈관을 이용한 술기를 천공지라고 해요. 천공지는 환자의 근육이나 신경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도 이식이 가능하고, 덧댄 피부 자체가 얇아 모양이 예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각광받고 있는 재건수술이에요.”

김연환 교수는 천공지 피판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클래스라며, 그 중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는 옆구리 쪽인 흉배 천공지를 이용한 미세수술의 리딩그룹에 속함을 강조했다.

그의 말마따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에는 김연환 교수의 스승이자, 미세수술 분야의 권위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복벽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의 권위자인 안희창 교수를 비롯해 흉배 천공지를 이용한 두경부 재건에 능통한 김정태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스승들의 수술을 보며 재건성형 분야 전문의를 꿈꿔온 김연환 교수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하지재건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다. 훗날 자신의 입으로 ‘꿈이 실현되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 ‘의사 정신’에 매료된 공학도

“아주 어렸을 때는 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로봇과 관련된 분야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매력을 느껴 실제로 공대에 진학했어요.”

김연환 교수가 공대 1학년을 마치고 진로를 바꾸기 위해 다시금 전쟁터 같은 입시 현장으로 돌아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손을 다쳐 봉합술을 받은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 치료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 봉사와 사랑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정신’을 발견했고, 곧 그것에 매료됐다. 남들이 늦는 때라고 만류했지만, 김연환 교수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의대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멀쩡히 잘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뒀으니, 합격에 대한 부담감도 컸고요. 운이 좋아서, 운명처럼 의사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겪으며 정형외과 전공, 그중에서도 손(Hands) 파트를 전공하려 했다는 그는 인턴 시절, 위에 언급했던 두 스승의 수술 장면을 보면서 어린 시절 관심 가졌던 공학과 의술의 만남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없는 조직을 만들어주고 손상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의사가 된다면 낙심했던 환자의 삶에 편리함과 희망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의사의 그림에 성형외과가 더 맞는 것 같아서 노선을 바꿨죠.”

하지만 아들이 미용성형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그의 아버지는 오래도록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오해가 풀린 것은 김연환 교수의 레지던트 시절이다. 갈아입을 속옷과 셔츠를 들고 병원을 찾았던 그의 아버지가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얼굴을 2시간 가까이 꿰매고 있다는 아들의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였다.

“아직도 일반인들의 인식에는 제가 진행하는 다리 쪽의 큰 재건수술들이 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

나 뼈가 아닌 부분,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 결손 됐다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형외과에서 치료와 수술을 진행하죠. 성형외과에서 미세 재건수술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종종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 실력을 쌓는 노력은 ‘환자’를 위한 것

김연환 교수의 하루는 팍 짜여있다. 수술과 외래진료가 없는 날에는 강의와 연구 스케줄로 빡빡하다. 이런 그의 일과가 말해주듯 김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미세수술을 기반으로 6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해 외국 저널에 기고하는 근면·성실함이 돋보이는 사람이다. 2011년엔 ‘2,398례의 표재성 지방흡입술 후 발생한 합병증의 후향적 분석’, ‘혈관 병변 환자에 있어 천공지 피판을 이용한 하지 재건’ 등의 연구 논문을 통해 미국의 인명연구소 ABI와 영국의 국제인명센터 IBC에 동시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또한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등 학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세계 최고의 하지재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때때로 이 정도면, 열심히 살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다가도 더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동료 선생님들을 볼 때면 자극을 받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는 인성과 실력이 갖춰진 의사인데요. 실력이 없는 의사는 최고가 될 수 없을뿐더러,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죠. 저 역시도 실력 있는 좋은 재건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약한 사람들, 다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되새긴다는 김연환 교수. 또 하나, 언제나 ‘내 동생,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수술한다고 생각한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고 빠른 수술로 시간을 단축하려는 그만의 노력이자, 환자가 더욱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의 밑바탕이 된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친절하지만, 후배들에게는 엄격하고 가장 혼을 많이 내는 의사로도 유명하다.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가장 우선에 두는 그의 깊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성형외과에는 미용성형만이 아니라 성형외과의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한 재건성형 분야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해요.” 재건수술을 망설였던 환자가 “수술받기 잘했다”고 말할 때 성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뿌듯하다는 김연환 교수. 그가 누군가의 삶에 한 줄기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재건성형외과의’를 천직이라 스스로 믿고 말하는 이유다.👊

“성형외과에는 미용성형만이 아니라 성형외과의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한 재건성형 분야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해요.”



김연환 교수는 없는 조직을 만들어주고 손상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을 통해 환자의 삶에 편리함과 희망을 주고 있다.

두 바퀴 여행길에 만난 공존과 성장의 공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자전거동호회 '라운'

온종일 치열하게 일하다 보면 몸이 본능적으로 '달려야 한다'고 말하는 시간이 온다.
달리면서 머릿속을 비우면 또 새로운 생각을 채울 공간이 생기는 법. 오늘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들은 일하기 위해 달리고, 달리기 위해 또 일한다.

글. 윤진아 사진. 김상민



벡타이 풀고 '열혈 라이더' 변신

자전거와 함께 은빛 물도 달리고 강바람도 달린다. 퇴근 후 양복을 훌훌 벗어 던지고 병원 인근 왕숙천 체육공원으로 모여든 자전거동호회 '라온' 회원들이 이주한 회장의 구렁 아래 뜨거운 숨을 내뿜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장맛비 때문인지 더없이 청량해진 공기에 참가한 회원들 모두 시작부터 한껏 즐거운 눈치다.

유난히 들뜬 표정의 황희수 씨가 말한다. “가끔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탈 때는 평소와는 뭔가 다른 기분이 들어요. 왜,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음, 이걸 너무 거창한가? 하하! 압튼, 열심히 일하고 후회 없이 삶을 즐기며 산다는 우리 라온의 꿈이 실현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라온은 ‘즐거움’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회장을 맡고 있는 이주한 회장은 기실 운동과는 담쌓고 살던 사람이다. 눈코 뜰 새 없

이 바쁜 업무로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 있던 작년 여름, 바쁜 일정을 쪼개 자전거동호회 ‘라온’을 만들고 회원들과 함께 매일 조금씩이라도 라이딩을 즐기며 인생이 달라졌다고 한다.

뛰니뛰니해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회원 모두를 이끌고 처음 장거리 코스를 완주했을 때다. 혈당 수치가 높고 중성지방도 경계선에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온 결과를 테스트하는 자리였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빠의 도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컸다.

“평소에는 주중에 팔당이나 양평으로 가볍게 라이딩을 하다가 주말을 맞아 춘천까지 장거리 라이딩을 계획했는데, 며칠 전부터 설레더라고요. 절반 정도의 지점을 넘어가면 슬슬 몸에 부담이 오기 시작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어디선가 구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하네!’ 하면 무리에서 ‘둘!’이라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모두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끝까지 달린 것뿐인데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자축하며 즐거워하는 동료들 덕분에 왈칵 눈물이 날 뻔했었다. 앞서 달릴 경우 스스로를 통제하며 정진해야 하고, 뒤처져 있을 경우 앞선 선수가 안심하도록 간격을 조절하며 추격해야 하는 단체 라이딩은 공존의 법칙을 배우기에도 그만이다.

바쁜 일상 틈틈이 어떻게든 인생을 즐길 ‘짬’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좋은 사람들과의 즐거운 라이딩 한 판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 또다시 다가올 혹독한 하루를 여유롭게 준비하며 라온 회원들은 환자에게, 자녀에게, 지인들에게 더 좋은 동행자가 되어간다는 자신감을 얻는다고 했다.

모두의 꿈을 싣고 달리는 자전거

딱히 거창한 신념이나 이유 같은 게 있어서 타는 건 아니라고 했다. 누구 말마따나 ‘일상 속 가장 간편한 탈것’이기에, 이들은 두 바퀴 자전거로 못 갈 곳이 없다.

“자전거를 타면서 얻는 즐거움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를 만나기도 한다는 걸 빠뜨릴 수 없지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어내는 바람의 느낌도 좋고, 바람을 타고 풀잎 사각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참 좋네요. 몸은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기분은 하늘 위를 훨훨 날아오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얻는 즐거움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를 만나기도 한다는 걸 빠뜨릴 수 없지요. 몇 달 전, 아무것도 모르고 합류했던 100km 장거리 라이딩만 해도 그래요. 평소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몰라도 저처럼 조금씩 타던 사람에게는 아주 대단한 일거든요. 그런데 그 완주 경험이 일상생활에도 자신감을 주고 자기 격려에도 그만이더라고요. 그 날의 라이딩처럼 달리다 지치면 잠시 숨을 고르고, 난관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즐겁게 전진할 용기가 생겼을까요?” 사나이로 태어나 장비 욕심 없기도 쉽지 않다. 고가의 선수용 자전거를 비롯해 헬멧,



안장 등 나날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다 보니, 문영민 씨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근검절약하며 살고 있다. 환경 보호는 물론이고 교통비 절감, 체력증진, 거기다 ‘간지’까지 더해주는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넘치는 자전거 사랑은 장기적으로 남는 장사임에 틀림없다.

달리자, 지금 이 순간을

바람을 밀며 걸던 길을 다시 등에 지고 되돌아오니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문다. ‘라온’이라는 이름 아래 페달을 밟으며 함께 달린 것처럼, 이들은 앞으로도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서로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며 꿈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 “지치고 힘들 때면 저도 그때의 ‘마의 90km 지점’을 떠올립니다. 숨이 멎고 다리가 풀리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샘솟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 주저앉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비를 극복하고

완주라는 희열에 도달하지요. 업무에도 수많은 고비와 난관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고비를 넘겨야겠다는 의지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서정원 씨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다가도 고지가 보이면 없던 힘도 솟아나더라고 덧붙였다. 페달을 힘차게 밟고 땀과 함께 일상의 묵은 먼지를 날려버리며, 라온 회원들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들답게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없다. 단 하나, 이다음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돼서도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스포츠인으로 건재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단다. 자칫 한쪽으로만 기울 수 있었던 마음에 균형을 주고 함께하는 해안을 얻는 것이야말로 라이딩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오늘도 ‘라온’ 회원들은 세상을 향해 자전거 바퀴를 높이 든 참이다.🚴

각 분야의 협력 진료체계로 완치에 도전하다



원발 장기별 암종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1999년 위암(20.7%)에 이어 2위(13.2%)를 기록했던 간암(간세포암종 및 간내 담관세포암종 등을 포함한 원발성 간암)은, 2010년에는 갑상선암(17.8%), 위암(14.9%), 대장암(12.8%), 폐암(10.3%)에 이어 5위(7.9%)로 내려갔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에게 많이 생기는 암종 중 하나인 간암은,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이나 치료 후 재발 가능성이 높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양대학교병원 간암센터에서는 간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글. 전대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침묵의 장기 간에 찾아오는 암세포

연령별 암종 발생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암종은 65~74세에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는데 반해, 간세포암종은 50~59세에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간암 발생이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B형 간염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간암 발생의 원인은 B형간염(72.3%), C형간염(11.6%), 알코올 간질환(10.4%), 비B비C형간염(0.7%) 순이다.

간암의 경우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 간의 특성으로 인해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심한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말기인 경우도 많아 발병 전 정기 검사가 중요하다. 대체적인 간암의 증상으로 무기력, 피로감, 상복부 불쾌감, 오심, 구토, 체중감소나 식욕부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간암은 다른 암에서의 전이 가능성도 높는데, 전이성 간암은 대장암의 전이가 가장 흔하다. 그 밖에 위암, 폐암, 유방암, 췌장암 등도 간으로 전이를 잘 하는 암종에 속한다.

간암의 주된 치료방법으로는 외과적 간절제술과 간이식술, 경동맥 화학색전술, 그리고 국소적 치료법인 고주파 열치료 및 경피적 알코올 주입술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전신적 항암요법과 방사선치료법 등을 동원한 단독 혹은 병합치료가 필요하다.

환자 개별 상황 고려한 다학제 진료

한양대학교병원 간암센터에서는 간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간암에 대해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간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외과, 담도췌과, 방사선종양학과, 및 병리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매주 주기적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특히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는 5분야 이상의 전문가와 환자 및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다학제적 진료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 및 병리과의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방침에 대하여 논의하고,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향후 치료 방침에 대한 협의가 이어진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간암 환자 개개인에 맞는 최상의 진료를 도출해내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준비하는 간암 치료의 미래

최근 한양대학교병원 간암센터는 최신 방사선 치료기체인 노발리스(Novalis)를 이용하여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간문맥(혈관)을 침범한 간암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의 간동맥색전술 또는 항암치료와 더불어서 방사선 치료를 함께 병용하여 간암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나이가 최선의 치료 기술과 장비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간암 치료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간이식을 위한 공여자가 없어 간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를 위해 세포치료센터 및 인공간 개발 연구 등, 세포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또한 공학 및 약학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하며 기존의 치료법보다 우수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은 간암 치료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긴밀한 소통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는 끊임없는 연구로 한양대학교병원 간암센터는 간암 완치에 도전하고 있다.📞

절제와 이식, 효과적 간암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하다



약 20~30년 전만 해도 간암의 예후는 매우 절망적이어서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1년내에 사망했다. 그러나 최근 간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고, 수술기법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많은 환자들이 수술 가능 범위에 들어오게 됐다. 여기에 수술 외 치료방법의 발달 등이 더해 간암의 생존률이 눈에 띄게 좋아진 가운데, 여전히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간암 치료법으로는 간 절제 및 간이식 수술을 들 수 있다.

간암 발생 시에는 일차적으로 간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적절한 절제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여건이 허락된다면 간이식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김한준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



간절제, 재발을 낮추는 제1의 방법

간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부피의 30% 정도만 남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장기다. 하지만 간경변 등의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간의 절대량이 부족해져 간을 절제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간절제 시에는 종양의 병기만을 고려하는 타 장기 암과 달리, 종양 자체의 병기와 함께 주위 조직의 간기능을 함께 고려한 뒤 절제를 진행해야 한다. 간절제를 위해 시행하는 수술전 검사로는 간기능 검사를 포함한 일반적으로 수술에 필요한 검사 이외에 잔류간기능 검사가 있는데, 이를 통해 환자의 현재 간 상태로 어느 정도의 간절제가 가능한가를 추산할 수 있다. 간절제 부피를 추산하기 위한 간용적측정법은 CT나 MRI 등의 단면 영상을 이용해 수술 전 간용적, 절제 후 간용적, 종양용적 등을 추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간절제율을 계산하여 간기능 검사와 함께 간절제 한계를 추측한다.

절제될 간용적이 환자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이내로 판단될 경우 수술을 시행한다. 여러 가지 간절제 기법이 있으나 해부학적인 간절제면을 만드는 것이 수술 후 남아 있을 간의 기능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해부학적인 간절제를 위한 간 현수 기법(Hanging maneuver)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간절제를 시행하고 있다. 간을 절제할 때는 간동맥, 문맥, 간정맥, 담도 등 간의 맥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후에는 기본적인 수술 후 처치에 더해 간기능을 모니터링하며, 간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혈 혹은 담즙류 발생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다. 종합하면 간부전이 발생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재발을 가장 낮추는 절제가 치료목표라고 할 수 있다.

간이식, 악성환자도 완치 가능한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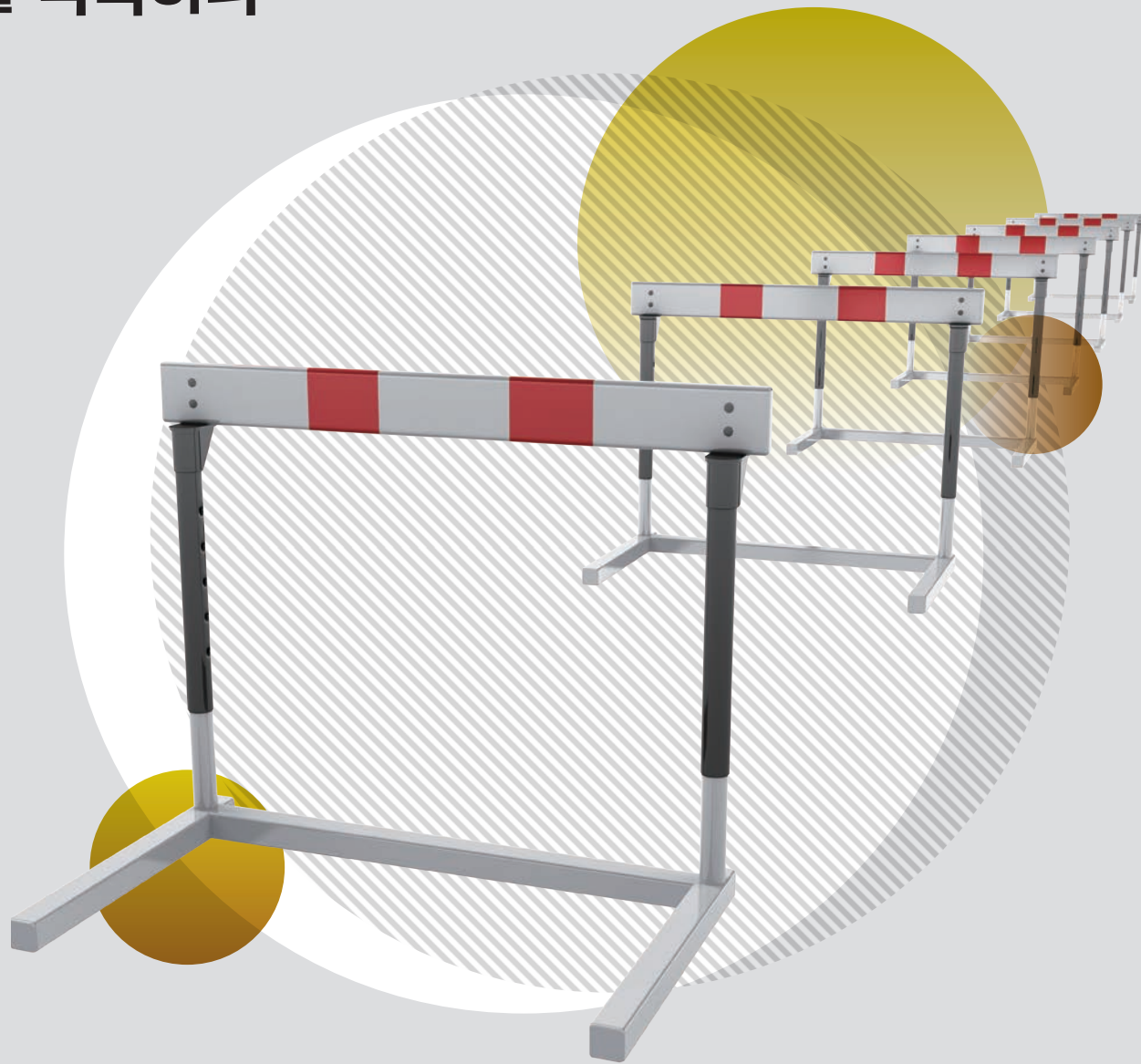
간이식은 간암뿐 아니라 동반된 간경변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근치요법이다. 간기능이 많이 떨어져 절제불가능한 악성 간종양환자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간이식은 공여자에 따라 사체간이식과 생체간이식으로 나뉜다. 사체간이식은 사체로부터 장기를 구득하고 생체간이식은 공여자의 간 일부를 절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간을 적출하는 공여자 수술 시, 사체간이식은 다른 장기의 구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여자를 크게 개복하여 하대정맥과 함께 전간(Total liver)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아, 수혜자 수술 시에는 하대정맥 합병절제와 Piggy-back technique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생체간이식에서는 공여자의 안전이 절대로 확보되어야 하며, 우간절제, 우후구역절제, 좌간절제술 등의 방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 우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간을 이식 받는 수혜자 수술의 경우 간적출, 간정맥재건, 간문맥문합, 간동맥문합, 담도문합으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에는 이식편 기능부전, 거부반응, 간동맥색전 및 담도협착 등을 잘 모니터링하고 이의 예방을 위해서 면역억제요법,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도 늦었으나 최근에 B형간염에 의한 간암의 간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간질환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는 간기능을 가능한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암 발생 시에도 일차적으로 간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적절한 절제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여건이 허락된다면 간이식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한다.📞

영상을 활용한 비수술치료로 한계를 극복하다



간암은 여타 다른 암과는 다른 몇 가지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가 기저 질환인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고 전통적인 암의 치료방법인 수술과 항암요법 이외에 암이 발생한 장기를 통째로 교체하는 간이식이 중요한 치료방법의 하나라는 점이 그렇다. 또한 ‘인터벤션’ 기술이라고 불리는, 수술보다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이 이용된다는 점 역시 간암의 커다란 특이점 중 하나이다.

중재적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인터벤션’은 수술에 비하여 개복이나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나, 치료의 최종 결과는 수술과 유사하다.

글. 송순영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유도로 진행되는 ‘인터벤션’ 기술

중재적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인터벤션’은 일반인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의학의 한 분야다. 간략히 설명하면 초음파나 X-선과 같은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몸 속을 들여다보면서, 피부의 작은 바늘 구멍 정도의 통로를 이용해 병소에 접근하여 치료를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수술에 비하여 개복이나 전신마취가 필요 없으나, 치료의 최종 결과는 수술과 유사하다.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의 과정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고, 입원기간도 짧으며 반복적 시술의 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간암 환자의 경우 간경화나 만성간염으로 간기능이 좋지 않거나, 간암 자체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수술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인터벤션 기술은 이와 같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됐다. 그 중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시술로 ‘고주파열치료술’과 ‘경동맥화학색전술’이 있다.

간암을 태우는 ‘고주파열치료술’

간암의 고주파열치료술은 흔히 소작술이라고도 불린다. 초음파나 CT를 이용하여 간암 부위를 바늘로 찌르고, 바늘 끝에 일정한 크기의 열을 발생시켜 종양을 태워 괴사시키는 시술이다. 수술처럼 종양을 잘라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절히 선택된 환자의 경우 수술과 큰 차이 없는 좋은 결과를 보여 준다. 다만 크기가 큰 경우나, 다발성 병변 등이 진행된 경우, 초음파나 CT 유도 하에 접근이 어려운 부위, 시술 중에 협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수술이나 다음에 언급할 경동맥화학색전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주파열치료술은 시술을 위해 굵은 바늘을 사용하고 높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술 도중에 통증을 유발하며, 환자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매우 심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적절한

진통제와 진정제를 사용하여 조절이 가능하다.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주로 바늘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심각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간단한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

혈류를 차단하는 ‘경동맥화학색전술’

‘색전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 혈관에 다양한 색전물질을 주입해 의도적으로 막는 인터벤션 기술을 말한다.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은 이러한 색전술의 일종으로, 간암으로 들어가는 동맥에 항암제를 섞은 색전물질을 주입하여 국소적으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효과와 함께 간암의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방법이다. 간 동맥의 혈류를 차단할 경우, 간암은 혈류를 공급받지 못하지만 정상 간은 문맥을 통한 혈류 공급이 유지되기 때문에 간암만 선택적으로 괴사시킬 수 있다.

경동맥화학색전술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치료법으로, 주로 간암이 진행되었거나 간기능이 좋지 못하여 수술을 하기 곤란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병변의 진행이 제한적일 경우에는 수술로 절제한 경우와 견줄 정도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환자라도 일단 덜 침습적이고 회복기간이 짧은 색전술을 시도하여 경과를 관찰한 후, 필요에 따라 수술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

색전술은 혈관조영실에서 X-선 유도 하에 사타구니의 동맥을 바늘로 찌러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 간동맥에 접근한다. 간암을 공급하는 동맥에 최대한 근접하여 작은 관을 위치시키고, 그 관을 통해 약물을 주입한다. 색전술 역시 수술과 달리 전신마취나 개복을 불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술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이점이 있다. 시술 후 종양의 괴사와 관련된 미열, 구토, 통증 등의 증상이 2~3일간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안정과 간단한 약제 투여로 호전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시술을 2~3개월 간격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김종량 이사장

성장 곡선에 가속도 붙었다 지금 바로 '제2의 도약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신축 착공식

어느덧 개원 20주년, 지역사회에 울타리를 넘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힘찬 도약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지난 7월 29일 진행된 신관신축 착공식 현장에서 찾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꿈꾸는 내일의 청사진을 공개한다. 글. 박여민 사진. 박승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부족했던 단 한가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하 구리병원)은 구리와 남양주 지역의 보건·의료 위해 지난 1995년 개원했다. 현재 경기 동북부의 대표적인 대학병원으로, 인근지역인 서울 동북부와 경기도민 일부까지 포함한 약 100만 명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구리, 남양주 지역의 택지 개발과 중부고속도로 연결, 지하철 8호선 연결 사업 등의 이슈로 인한 발전 및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 역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신관신축은 구리병원의 의료진은 물론 병원을 내원하는 모든 이들의 요망이기도 했다. 신축되는 신관은 진료 공간 확보와 입원실의 확충을 포함, 연구중

심병원으로의 도약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상 5층 규모에 산부인과, 비뇨기과를 비롯한 외래 진료실과 중환자실,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구성된 특성화센터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에는 6층 규모, 총 134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 시설을 마련하여 이전까지 구리병원의 만성적인 민원 사례였던 주차공간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관신축은 구리병원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이 동참하는 발전기금으로 진행되어 더 그 의미가 깊다. 레지던트와 인턴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이 지난 3월부터 20억 원을

목표로 신축 기금을 모집하였으며, 적극적인 참여 속에 7월 현재 까지 15억 4천만 원의 기금이 모였다.

제2의 도약, 그 첫 삽을 뜨다

신관신축 착공식은 지난 7월 29일 구리병원 본관 뒷편, 신관이 들어서게 될 별관 부지에서 진행됐다. 신관신축 착공식을 축하하기 위한 병원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구리병원의 김경현 병원장(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재민 부원장(현 구리병원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교직원과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이영무 한양대학교 총장, 최애경 구리보건소장 등 원외 인사들도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

김종량 이사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키우기 위해 내가 직접 이 땅을 샀고, 이렇게 신관을 신축하게 됐다”며,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구리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신관신축을 제2의 도약기로 삼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약할 구리병원의 목표치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 사랑과 응원을 받는 병원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경현 병원장은 메르스 사태의 성공적인 방어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진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지금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행복해지는 병원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시공을 맡은 한양산업개발의 이상섭 대표이사도 참석해 안전하고 신속한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환자가 편안하고 의료진이 편리한 시설, 쾌적한 환경과 최신 설비로 구리와 남양주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대학병원으로의 도약 의지를 다지며 착공식은 마무리됐다. 신관신축은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쉬지 않고 달려온 20년의 흔적

이번 신관신축이 더욱 뜻 깊은 것은 올해로 구리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1995년 10월 개원한 구리병원은 20여 개 진료과에 500여 개의 병상으로 시작하여 조금씩 꾸준한 발전을 이뤘다. 개원 10주년이던 지난 2005년에는 새롭게 교수연구동을 완공하고 서관을 증축하여 진료시설과 연구시설을 분리, 환자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진료를 받고 교수들은 더욱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3년에는 의료영상

정보전달시스템(PACS), 2006년에는 영상 EMR, 2007년 전자진료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중환자실 확장, 병상 증설 등의 꾸준한 성장세 속에서 2008년 의료기관 평가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2009년에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의료서비스 영역 ‘전 부분 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으며,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한 3대 암수술(간암, 위암, 대장암) 사망률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끊임없이 역동하며 발전하는 구리병원에게 새로운 공간 창출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하게 제기된 문제였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관신축 계획은 수 차례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2014년 8월 구리시청의 허가를 받았고, 올해 7월에는 교육부의 최종 승인 허가를 마무리 했다. 특히 지난 2년간 경영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이 신관신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이 되었다.

현재 구리병원은 구리시 및 남양주시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며 저소득층 및 이주노동자 아이들의 안과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인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더 큰 의료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이 확대될 구리병원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

Mini Interview

“사람으로 치면 이제 겨우 성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임 원장



우선 어렵게 시작된 신관신축을 임기 중에 마무리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2~3분의 원장님을 거쳐 계획된 신관신축은 구리병원 전 의료진과 직원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의 발전 속에서도 의료질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공간 배려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신축이 무엇보다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10월로 예정된 의료기관 인증 평가 통과가 임기 중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난 1주기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며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2주기 평가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다시 한 번 국가가 인정한 안심·안전 의료기관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할 것입니다.

저는 1995년 구리병원의 시작부터 함께 있으며, 20년간 우리 병원의 발전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제 20년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성년에 이른 것인데, 신관신축은 앞으로 우리 병원이 제대로 된 성년을 맞이하기 위한 도약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물론 병원에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는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구리병원의 성공적인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는 장면

‘독한’ 그녀가 뜬다 어떤 악녀의 불안한 행복찾기

드라마 <여왕의 꽃> 장용의 심혈관질환

신데렐라의 시대는 갔다. 대세는 누가 뭐래도 악녀다. 늘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녀들은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들은 물론 사랑까지도 뻘뻘하게 도구로 이용한다. 때로는 악행마저도 서슴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 과연 그렇게 이뤄낸 성공 앞에서 그녀들은 모두 행복할까? 바로, 야망으로 가득 찬 여자와 그녀가 버린 딸이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는 MBC 주말드라마 <여왕의 꽃>이 던지는 질문이다. 글 박여민 사진제공. 지앤지프로덕션&김중학프로덕션



세상에서 믿을 건 단 하나. 바로 내 자신

한 여자가 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겪었고, 청소년기는 고아원에서 보내야 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는 그녀의 임신 소식을 차갑게 외면했고,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다친 여자는 홀로 출산한 딸을 매몰차게 버린 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새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한다.

더 이상 짓밟히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은 채 성공이 곧 행복이라 굳게 믿는 레나정(김성령)은 의도적으로 대기업인 TNC 그룹의 장남 박민준(이종혁)에게 접근했다. 그의 눈에 띄어 레스토랑에 입사하고, 스타 셰프로 TV에 얼굴을 알리며 세간의 조명을 받고, 이내 박민준의 사랑을 얻게 되기까지 결정적인 계기는 모두 그녀가 꾸민 연출에 의한 것이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 우승 상금을 양보한 레나정에게 박민준은 “생각보다 따뜻한 여자”라며 호감을 보이지만, 뒤돌아선 레나정은 ‘따뜻하다고? 천만에. 내일이면 온 세상이

내 이름을 기억할거야’라고 혼잣말 할 뿐이다.

박민준의 사랑을 얻고, 박민준의 아버지자 그룹 회장인 박태수(장용)의 신뢰까지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녀에게 나타난 적은 다름아닌 박민준의 계모 마희라(김미숙)다. 장남인 박민준을 몰아내고 자신의 아들인 박재준(윤박)을 그룹의 후계자로 키워 TNC그룹을 손에 넣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마희라는 “백 마리 들개 속에 늑대가 숨어 있어도 늑대는 늑대를 알아본다”며 한 번에 레나정을 꿰뚫어 봤다. 레나정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을 우려한 마희라는 레나정과 박민준의 결혼을 막기 위해 레나정의 뒤를 캐며 지금까지 그녀가 벌인 자작극을 폭로한 것은 물론,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들춰내기 위해 20대에 출산했다는 아이를 찾아내는데 혈안이다. 레나정과 팽팽한 기싸움 끝에 말싸움을 벌이던 중, 그녀의 본심을 알게 돼 버린 ‘아내바보’ 남편 박태수가 충격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기도 했건만, 마희라의 야망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여기 또 다른 한 여자가 있다. 넉넉지 않은 형편으로 대학도 포기하고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나, 늘 씩씩하고 밝은 명랑소녀 강이솔(이성경). 사실 강이솔은 레나정이 젊은 시절 버린 딸로, 생부의 가정부에게 입양되어 그녀를 친모로 알고 자랐다.

소개팅 대리 아르바이트로 만난 TNC그룹의 차남 박재준(윤박)과 건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지만, 그 사랑이 누구에게도 쉽게 환영 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알 수 없이 강이솔에게 마음이 끌리던 레나정만이 시어머니가 된 마희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강이솔과 박재준의 결혼을 지지할 뿐이다.

이해관계와 욕망이 얽혀 만들어낸 가짜 사랑을 강요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젊고 순수한 두 연인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그러나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생모가 아니었다는 비밀을 알아버린 강이솔과, 레나정이 버린 딸을 찾아내 그녀를 몰락시키려는 세력들이 강이솔의 정체에 가까이 갈수록 레나정에게도, 강이솔에게도 행복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박민준의 진심에 레나정은 뒤늦게 진짜 사랑을 느끼지만, 시작부터 의도적인 만남이었기에 행복을 느낄수록 불안감도 커져간다. 게다가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며 아껴주고 싶은 상대인 강이솔은 마음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사생아이자, 현재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약점인 셈이다. 이제 레나정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만 한다. 과연, 두 모녀는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갑자기 찾아오는 가슴 통증을 조심할 것

임영호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펌프로서 혈액을 순환시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의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장기다. 이 중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면서 심장으로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의 흐름이 지장 받게 되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한다. 협심증은 경화된 혈관이 심하게 수축하면서 피의 흐름이 감소되어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폐색을 일으켜 혈액이 심근으로 전혀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극심한 흉통을 말한다. 이들을 통칭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부른다.

빠른 진단과 치방이 관건!

허혈성 심장질환 중 심근경색증은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앞가슴에 참기 힘든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여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체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심근경색증은 시간이 지나면 초기보다 통증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심장 근육이 더욱 광범위하게 괴사하기 때문이다. 치료법으로 막힌 혈관의 위치, 수, 병원에 도착한 시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심혈관 중재술, 혈전용해제의 약물 치료, 응급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이것만은 꼭!

1. 흉통 발생 시 : 바로 응급실을 찾는다. 심근경색은 진단에서 치료까지의 시간이 중요하므로 참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2. 혼자 있다가 흉통 발생 시 : 본인의 위치를 알린다. 심근경색증 발병 후 초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정맥인데, 혼자 있으면 심폐소생술의 가능성을 영영 놓칠 수 있다.
3. 운전 중 흉통 발생 시 :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를 정차시키고 119에 전화한다.
4. 뇌출혈, 위장관 출혈 등의 과거 병력 : 의뢰인에게 알린다. 혈전용해제는 물론 심혈관 중재술도 헤파린, 항혈소판제제를 사용하게 출혈의 위험성이 높다.



뼈보다 단단한 마음 만들기

삼성정형외과

골절이나 관절염 등 정형외과를 찾는 이유는 사실 대개가 비슷하다지만, 언제부턴가 잘못된 자세로 생긴 척추측만증 등의 문제로 병원을 찾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져 속상하다는 삼성정형외과의 지형곤 원장. 병을 빨리 고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건강해지는 법을 찾는 것이라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법과 함께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가벼운 운동을 권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글. 박여민 사진. 김상민

최선의 진료는 '힘'을 길러주는 것

구리시에 위치한 삼성정형외과는 동네 주민 누구나 드나들기 쉬운 아파트 근처 상가 2층에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촌과 학교가 밀집해있는 주택가 가운데다 보니 주 활동반경이 집에서 멀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학생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어찌다 다쳤는지, 때로는 하소연 하듯 때로는 투덜거리듯 병원을 방문한 이들은 털어놓았고, 그때마다 지형곤 원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우선 조용히 들어줬다. 대화를 나누며 갑작스런 통증이나 사고에 놀랐던 마음이 가라앉으면 의외로 아픔이 함께 줄어들기도 했다. 환자의 마음이 진정되면 지 원장은 꼼꼼한 체크를 시작한다.



삼성정형외과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95 해원빌딩 2층

●문의 : 031-557-5800



“환자분의 증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가끔은 본인의 증상보다 엄살도 심하고, 무조건 수술하거나 입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게 과잉진료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환자분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하되 힘을 과용하지 말자는 것은 삼성정형외과 지형곤 원장의 철학이다. 그렇게 가능한 환자 본인의 힘과 의지를 길러주는 방향으로 병원을 이끌어오다 보니, 언제부턴가 다른 병원을 갔다가도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어느새 단골이 된 동네 노인분들은 가족이나 주변인이 다른 병원에서 받아온 수술 진단 결과를 가지고 지레 걱정하는 마음에 지 원장을 찾아와 다시 한번 검사해달라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나 춘각을 다루는 위급 상황도 존재하는 법.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과감히 수술을 진행하고, 혹은 입원시켜 상태를 지켜보기도 한다. 총 29개 병상과 수술실 및 물리치료실 등, 삼성정형외과의 시설들은 언제나 모든 준비를 마친 채 환자를 위해 '레디'하고 있다.

넘침도, 부족함도 없는 '동네 의원'

삼성정형외과 개원 전,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지형곤 원장은 밤낮 없이 발생하는 사고로 먼 곳에서도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2011년 삼성정형외과 개원 당시 그는 24시간 진료시스템을 고집했다. 병원 인근은 주택가 밀집 지역이지만 대학병원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닌 이상 늦

게까지 하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 예상대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심한 내상 환자의 방문은 꾸준하게 이어졌다.

지형곤 원장을 비롯한 삼성정형외과의 의료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서 먹고 자며 환자를 돌봤다. 집에서 남편과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아쉬워하던 가족들의 목소리도 그때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다.

“솔직히 체력도 많이 부족했고, 열정만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과연 24시간 시스템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정성을 쏟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됐어요. 10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만큼, 한 명의 환자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지 원장은 과감하게 진료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운동을 시작했다. 공부 시간을 늘리고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정형외과 컨퍼런스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최신 동향이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다. 응급 환자들에게 소견서를 써주며 협력의 인연을 맺게 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통해서도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처럼, 삼성정형외과를 주로 찾는 노령 층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이전보다 더 환자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고 상태에 따라 가벼운 운동을 권하는 것도 잊지 않다 보니, 병원의 진료시간은 줄었어도 환자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여전히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삼성정형외과 덕에 건강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이라는 지형곤 원장. 바람은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동네 의원'이 되는 것이다.☺

음악사상 최초로 노래의 감정을 오페라에 담다

클라우드 몬테베르디 오페라 <오르페오>
Claudio Monteverdi Opera <Orfeo>



르네상스 말기인 1570년경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문예 부흥운동이 한창이었으며 각지에 '아카데미아'라고 일컫는 모임이 많이 생겨나 예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예술 애호가이자 후원자인 조반니 데 바르디 백작의 피렌체 저택에서도 작곡가, 가수, 시인, 사상가 등 당대의 예술가들이 모인 '카메라타 피오렌티나'라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백작을 비롯해 줄리오 카치니, 피에트로 스트로치, 자코포 페리,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버지인 빈첸초 갈릴레이 등이 모임에 참여했다. 이들은 예술과 음악, 극작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당시 음악은 가사에 종속된 것이었다. 즉 예술의 참다운 실현은 지적인 시를 세련된 방법으로 면밀히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음악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작품'이라는 뜻의 오푸스(Opus)의 복수형인 오페라(Opera)는 음악과 극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 무대예술로 완성되기까지 당시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페리는 모임의 성과를 토대로 1597년 최초의 오페라인 <다프네>, 1600년 <에우리디체>를 발표했고, 카치니 또한 1602년 <에우리디체>에 곡을 붙였다.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몬테베르디가 1607년 <오르페오>를 발표한다. 그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감정을 오페라에 담아냈고 더불어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오페라 형식에 강한 생명력을 부여한다. 이것이 최초의 이탈리아 오페라가 탄생한 배경이다.

<오르페오>는 만토바 공의 결혼 축하연을 위해 알렉산드로 스트리찌오의 시에 곡을 붙여서 쓴 작품으로, 정상급 성악기들과 합창단, 무용단, 대규모 관현악단 등을 고용해 호화스럽게 공연되었다. 몬테베르디는 <오르페오>를 통해 음악의 위대함을 표현하려 했다. 등장인물들이 '음악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표현력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가사의 미묘한 느낌을 음으로 표현하는 데 음악적으로나 극적으로나 뛰어난 기법을 보였다. 풍부한 관현악과 정교한 성악으로 음악이 가사에 종속되는 것에서 과감히 탈피해 더 나아갔다.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의 원형에 충실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태양의 신 아폴로와 뮤즈 파르나소스의 아들인 오르페오와 그의 아내 에우리디체의 이야기가 서막과 5막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서막 음악의 신은 “아름다운 선율로 괴로워하는 영혼을 평온하게 하고, 고상한 분노와 사랑으로 얼어붙은 영혼들을 녹일 수 있다네”를 노래한다.

제1막 **들판의 아름다운 정경** 님프와 양떼들이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사랑을 축복하는 즐거운 합창과 춤을 배운다. 오르페오는 에우리디체를 얻은 행복을 노래한다. 에우리디체도 이에 화답하며 또 다시 합창과 현악이 연주되면서 목가적인 평화로움이 한층 우아함을 더한다.

제2막 **제1막과 같은 아름다운 들판** 신포니아가 연주되고 오르페오와 양치기들의 즐거운 노래가 더해진다. 하녀가 나타나서 에우리디체가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는 비보를 전한다. 오르페오는 아리아 '나의 생명인 당신은 죽고'를 노래하고 황천으로 가서 그녀를 찾겠다고 맹세한다.

제3막 **황천으로 가는 강** 희망의 여신이 나타나서 오르페오에게 격려하지만 뱀사공 카론테는 그를 냉정하게 대한다. 이에 대해 여러 신에게 호소하는 오르페오의 독창 '힘찬 정령들이여'가 나온다. 이 애절함에 마음이 움직인 뱀사공은 깊은 잠에 들고 그 사이에 오르페오는 강을 건넌다. 신포니아가 기쁘게 울리고 정령들의 합창이 인간의 승리를 찬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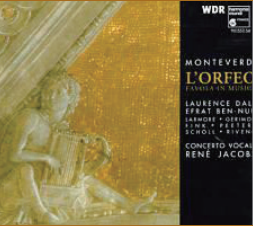
제4막 **황천** 오르페오의 노래에 감동 받은 황천 여왕 프로세르피나는 황천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애원하고, 이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 세상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에우리디체를 돌려보내도 좋다고 허락한다. 정령들의 기쁨의 합창과 오르페오의 독창이 나온다. 그러나 그는 애인의 모습을 보기 위해 뒤돌아보고 만다. 정령들의 힐책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황천으로 향하는 에우리디체는 탄식하고 오르페오는 최후의 이별을 고한다. 신포니아가 연주되고 정령들이 '오르페오는 지옥에서 승리하고 자기 마음에 패배했다'고 노래한다.

제5막 **황천** 오르페오의 아리아 '산도 슬퍼하고 바위도 눈물짓네'가 전반에 흐른다. 규모가 큰 이 아리아는 메아리를 흉내 내어 노래하는 독특한 효과를 낸다. 여기에 애절한 산울림의 에코효과가 더해진다. 아폴로가 나타나서 절망에 빠진 오르페오를 위로하면서 천국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말한다. 아폴로와 오르페오는 이중창을 부르고 양치기들의 피날레 합창이 이들을 전송한다. 이 합창은 스페인의 춤곡 양식인 모레스카풍의 리듬으로 되어있다. 오르페오의 승천을 전송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양치기들 머리 위로 막이 내려온다. 🎵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들을만한 Album



도미니크 비셰(오르페오), 안드레아스 술(에우리디체), 르네 아곱스(지휘), 콘체르토 보칼레(Harmonia Mundi, 1995)



안토니 롤페-존슨(오르페오), 줄리안 베어드(에우리디체), 존 엘리엇 가디너(지휘), 잉글리시 바로크 솔리스트즈(Archiv, 1987)



에릭 타피(오르페오), 마길리 슈왈츠(에우리디체), 미셸 코르보즈(지휘), 로잔 기악 성악 앙상블(Erato, 1968)

메르스의 공포가 드러낸 공동체의 민낯

영화 속 감염성 질환 이야기



“메르스?”, “개, 고양이도 아니고 보기도 힘든 낙타가 옮기는 감기라니 참 희한하네.” 처음에는 그냥 중동지방의 독감 정도로만 여겼다. “그 무섭다던 사스(SARS)도 무사히 넘겼는데 뭐 별 일 있겠어?” 방심을 한 탓일까? 기하급수적으로 메르스 감염자가 늘고 희생자도 생기더니 급기야 큰 대학병원도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체를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공포감이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키고 마침내 공동체의 분열까지 불러온다는 것이다.

감염으로 인한 재난상황은 영화에서 오래 전부터 표현되었다. **안드로메다의 위기(1971)**는 주라기 공원의 원작자인 마이클 크라이튼의 하버드 의대생 시절 작품으로 1969년 7월 인류 최초의 달착륙 직후 모두가 들떠 있을 무렵 우주탐사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 서술했다는 점에서 그 선견지명에 놀라게 된다. 정체불명의 외계물질에 오염된 인공위성이 지구에 추락하면서 미국 뉴 멕시코의 한 마을은 쑥밭이 되었다. 사람들은 혈액 성분이 결정체처럼 말라버리면서 모두 죽지만 6개월된 아기와 주정뱅이 노인 두 명만 살아 남았다. 외계물질은 혈액 내의 산소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아주 좁은 pH범위 내에서만 생존하게 되는데 그 양상은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프리온(크로이츠펔트-야콥병 유발)처럼 작동한다. 영화 도입부, 다큐멘터리처럼 기술되는 일련의 장치들(4일간 발생한 미국 과학의 위기, 반덴버그 항공기지의 스쿠프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 영화내용은 곧 대중들에게 발표 될 예정 등)은 당시의 월남전 분위기처럼 모든 정보를 장악한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입맛에 맞는 뉴스만 내보내는 상황을 상기시켜 묘한 기시감을 자아낸다.

인위적인 지구멸망의 시나리오를 핵, 생물학, 생화학으로 정리할 때 점차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은 생물학적 위험이 되는 미생물체 바이러스이다. 현대인의 생활기반인 대도시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은 가공할만한 생물학적인 전파력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통제불능의 유언버어 파급이라는 과물을 양산한다. 이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병균이 아닌, 공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 사회를 와해시키고 만다.


아웃브레이크(1995)의 모타바 바이러스 감염은 최근 원숭이를 매개로 한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그 사실적인 표현에 새삼스레 주목하게 되었다. 비행기, 극장,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환자의 기침으로 인해 퍼지는 비말(Droplet)이 일반인에게 전파되는 과정은 슬로우 모션과 줌 인 기법으로 생생하게 나타난다. 레벨 D의 보호복을 착용하고 바이러스를 배양하던 중 옷이 찢기면서 발생하는 의인성 감염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었다. 감염이 국가적 재난임을 알아차리고 군 의료진과 미국질병관리본부(CDC)가 신속히 전권을 행사하여 질병을 통제하는 과정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것이다.

뇌수막염 바이러스(MEV-1)를 매개로 한 **컨테이션(2011)**은 감염 경로 자체를 밝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자 증가율을 넘어서 확산되는 사회적 혼란으로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 가는 세상과 그 치유를 위해 희생하는 몇 명의 영웅들에 초점을 맞추 뿐이다. 인지하지 못할 만큼 단순한 접촉(핸드폰, 문손잡이)으로 매개되는 심각한 감염은 결국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발원지를 찾아 홍콩으로 온 감염전문가를 납치하여 백신을 얻으려는 주민들, 감염이 두려워 장례를 거부하는 장의사, 사재기를

못하게 되자 약탈과 방화까지 하는 시민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기침만 해도 옆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흘기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바셀린을 코에 바르며 비타민을 복용하던 바로 얼마 전의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영화 포스터의 “Nothing spreads like fear”란 문구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미치광이 과학자의 다락방에서 개발된 돌연변이 광견병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퀵린(2008)**, 다국적 기업 엠브렐러에서 만든 T-바이러스로 좀비가 되는 사람들과 이를 통제하려는 슈퍼컴퓨터 레드퀸을 다룬 **레지던트 이블(2002)**, 암치료를 위해 개발 중이던 크리핑 바이러스로 인해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남아 끝까지 백신을 제작하는 **나는 전설이다(2007)**, 미군이 누출한 트릭스 바이러스로 광기를 보이는 마을 주민들과 이를 박멸하려는 미군 사이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주인공 가족들이 나오는 **크레이지(2010)**는 인위적인 생명체의 창조를 통해 신이란 존재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교만함이 응징되는 계시록에 해당하는 영화들이다.

한국영화에서 재난영화는 아이디어와 자본의 한계 때문에 요원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람의 뇌하수체를 침범, 끝없는 갈증을 일으켜며 악액질(Cachexia)로 만들어 자살하게 만드는 변종 기생충 **연가시(2012)**의 위력은 대단했다. 체육관에 감염자를 격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와 백신을 만들기 위해 중반 이후 홀로 동분서주하는 김명민의 고된 동선은 서로 융합되며 울지 못할 헤프닝을 만들어낸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워낙 변종이 많아 이를 100%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병의 진행과정이 심하지 않아 고생을 좀 하다가 자연 치유된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스페인 독감,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조류독감까지 감기는 더 이상 만만한 호구가 아니었다. 2015년 대한민국은 들어본 적도 없던 메르스로 인해 치사율이 20%에 이르며 온 나라가 휘청거렸다. 국내 두 번째 감염 재난 영화 **감기(2013)**는 밀입국자를 통해 들어 온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초토화되고 격리되는 분당이라는 대도시와 질병의 파급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위상을 그려낸다. 헬기가 공중에서 사망자들을 체육관으로 패대기 친 후 불태우는 장면은 2010년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 살처분을 연상케 한다. 소각되는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고,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려는 고위층의 시도는 한국형 재난 컨트롤 타워의 한계일까?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자를 꿈꾸었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살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용 덕분이다.

불만한 Movie



안드로메다의 위기(1971)
감독 : 로버트 와이즈
출연 : 아더 힐, 데이비드 웨인



아웃브레이크(1995)
감독 : 볼프강 페터젠
출연 : 다스틴 호프만, 르네 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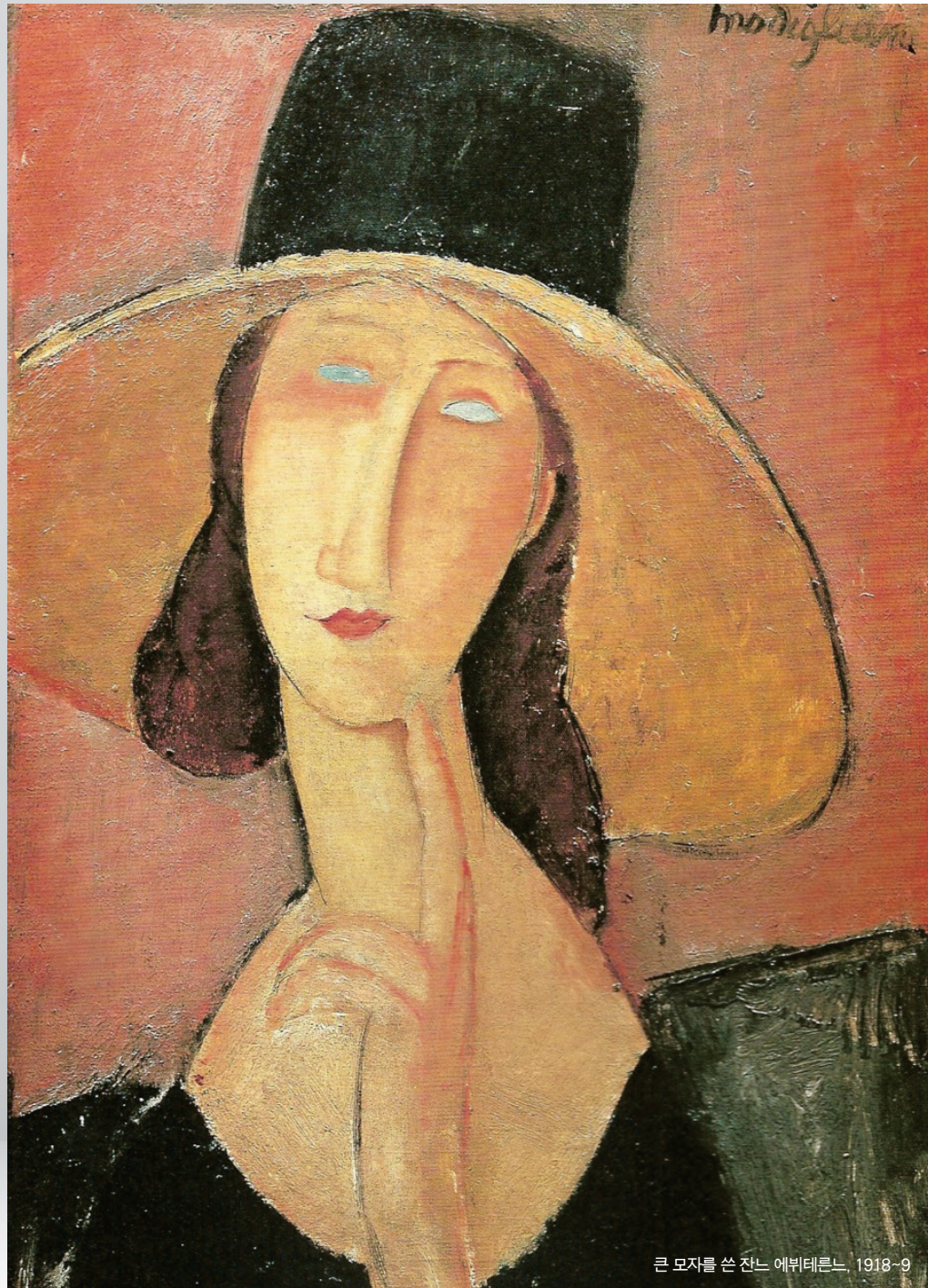
컨테이션(2011)
감독 : 스티븐 소더버그
출연 : 마리오 코피야르, 맷 데이먼

짧지만 강렬한 불꽃

시대의 획을 긋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 홍막염

긴 목에 길쭉한 얼굴, 눈동자 없는 아몬드 모양의 눈을 한 여성. 보는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간결하고 응축된 특유의 표현양식으로 유명한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1884-1920). 모딜리아니는 35년의 짧은 생을 살면서 400점에 채 못 미치는 유화작품을 남겼지만, 20세기 초 파리 몽파르나스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화가들을 일컫는 '에콜 드 파리(Ecole de Paris)'의 대표화가로 미술사에 한 획을 그었다.



큰 모자를 쓴 진느 에뷔테른느, 1918~9



글. 김혜선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

병마 속에서 피어난 예술가의 혼

요절한 천재 화가라는 다소 상투적이기까지 한 모딜리아니의 생애는 어릴 때부터 갖은 질병으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짧은 삶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 요소를 더한다. 모딜리아니의 병치레는 그가 10살무렵 발생한 홍막염, 14살에 티푸스, 16살 때의 폐결핵과 이에 동반되어 재발한 홍막염으로, 그의 청소년기 전체를 관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핵은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그가 3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병환으로 인해 이탈리아 각지로 요양을 가게 되고, 이 와중에 화실에서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으니, 모딜리아니의 생애에서 질병과 그와 연관된 사건들은 따로 떼어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모딜리아니를 어릴 때부터 괴롭혔던 홍막염은 폐와 흉곽을 싸고 있는 홍막이라는 얇은 막에 생기는 염증으로 그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폐렴 같은 세균 감염이 있으며, 류마티스성 질환이나 폐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홍막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호흡할 때 마다 흉막의 염증으로 인한 흉벽의 통증을 호소하고, 호흡자체의 곤란을 겪기도 한다. 또한 그 원인에 따라 기침이나 열이 발생하는 때도 있다. 홍막의 염증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흉강 내에 액체(흉수)가 고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며, 그 양이 많을 경우 폐가 짓눌리는 수도 있다. 흉강 내에 고인 흉수는 맑은 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체가 감염된 것이거나 염증으로 인한 고름 자체로, 이는 따로 농흉이라 부른다.

이제는 충분히 완치 가능한 '홍막염'

홍막염이나 흉수, 농흉의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인 질환에 대한 내과적 치료로, 이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나 혈액 검사 외에도 흉부의 전산화단층촬영(CT)을 시행하기도 한다. 확실한 원인 질환을 찾아내기 위해 흉수나 흉막 자체에 대한 조직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조직검사 시에는 흉수의 일부를 떼서 검사하며, 흉수와 함께 홍막의 일부를 같이 검사하기도 한다. 보다 충분한 조직을 얻기 위해서 흉강경 수술을 하기도 한다.

흉수의 양이 많거나 농흉이 있는 경우, 진단 뿐 아니라 치료적 목적으로도 이를 빼는 시술인 배액술을 해야 한다. 19세기에 처음 시작된 배액술은 지금까지도 기본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기술



폴 알렉상드르의 초상, 1909

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대체로 바늘을 흉강 내에 넣어서 고여있는 액체를 빼내거나, 가느다란 관을 흉관 안에 넣어 고인 액체를 빼낸다. 특히 농흉의 경우에는 흉강 안에 고이게 두지 않고 배액시키는 것이 원인 질환의 치료만큼이나 치료의 근간이 된다. 바늘로 흡인하거나 관을 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흉강경 혹은 개흉을 통해 안에 고인 농양을 제거하고, 염증으로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막는 홍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홍막염과 동반된 흉수, 농흉 모두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인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흉수나 농흉 자체에 대한 적절한 배액이 이뤄진다면 완치가 가능하다. 동반된 다른 질환으로 인해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회복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적어도 모딜리아니의 시대처럼 심대 유소년이 홍막염에 걸렸다고 병환이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될 정도의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다. 19세기 말에는 홍막염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 대한 연구가 잘 되어있지 않았고, 그에 대한 진단법 및 배액술 등도 시작 단계였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가 홍막염을 앓았다고 전해지고 있을 뿐인데, 그가 현대에 살았다면 초기에 구체적인 진단을 얻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완전히 회복된 건강한 몸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남기는 작품을 더 많이 남겼을 것이라 생각하니, 당시의 의학 수준에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따뜻한 배려 덕분에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혈전용해 중재시술로 왼손 절단 위기 넘긴 전재순 님의 편지
늘 따뜻함이 느껴지는 신정훈 교수님께

갑작스런 왼손의 통증으로 편히 잠들 수도 없었던 전재순 님은 따님을 따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찾았다.

주사 한 번이면 나를 가벼운 병인 줄 알았건만, 검사 결과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절단의 위험까지

올 수 있었던 ‘혈전색전증’이라고 했다. 정리. 박여민 사진. 정준택



늘 따뜻함이 느껴지는 신정훈 교수님께

퇴원을 앞두고 교수님의 얼굴을 보니 이렇게 또 고맙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7월 초 갑자기 찾아온 왼손의 통증은 움직이기는커녕, 살짝 건드리는 것도 참기 힘들어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통증은 심했지만 주사 한 대 맞으면 나를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을 몇 군데나 가도 차도는 없고, 큰 병원을 가보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딸은 오랜기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를 내원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주사나 맞고 오려던 건데, 딸의 담당인 이해순 교수님께서 바로 응급으로 입원할 것을 권하시더군요. 알고보니 제 손의 통증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시술이 진행됐고, 신정훈 교수님께서 내내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위낙 걱정이 많아 엄마를 안쓰러워하던 딸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안심시켜주시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에게 늘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며 걱정을 덜어주셨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심각한 병이었지만 신정훈 교수님을 비롯한 병원 분들의 정성 덕분에, 불안보다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했던 왼손의 통증은 어느새 사라졌고, 이제는 조금씩 다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진 저는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순간들을 생각하니 고맙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재순 드림



전재순 님께

진 심장내과 소속으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등의 허혈성 심질환 및 고혈압, 심부전 환자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관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기에 빠른 조치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류마티스내과로부터 급한 의뢰를 받아 전재순 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원 당시 왼손 및 손가락의 급성 혈전색전증으로 인해 왼손 손가락이 파랗게 변한 청색증 증상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가급적 빨리 중재적 시술 또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응급 상태였고 상지동맥혈관 조영술 및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후 통증은 바로 완화되었고 2번째, 3번째 왼손가락 끝부분을 제외하면 통증, 청색증, 감각이상, 마비 등의 증상이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혈전색전증으로 인해 피가 통하지 않는 부위의 조직들이 괴사가 되면 심한 경우 절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전재순 님께선 치료 후 혈류 장애가 개선되어 후유증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늘 함께 계시던 따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듯 합니다. 그러나, 혈전은 한번 생기면 평생 재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내원하시면서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움직일 수도 없는 심한 통증을 느끼셨을 텐데도, 잘 믿고 따라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정훈 드림

한양대학교의료원, 신입 원장단 인사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지난 8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경현 교수, 한양대학교병원장과 부원장에 이광현 교수와 김근호 교수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과 부원장에 김재민 교수와 박현겸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또한, 한양대학교병원 기획관리실장에 이오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기획관리실장에 한동수 교수, 한양대학교국제병원장에 윤호주 교수를 임명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김경현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1980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순천향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토마스제퍼슨 의대병원에서 연수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육연구부장(2005~2007), 부원장(2009~2011), 병원장(2013~2015)을 역임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이광현 한양대학교병원장
1980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미네소타대학교병원에서 연수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기획실장(2007~2009), 한양대학교병원 부원장(2009~2011)을 역임했다.



김근호 한양대학교병원 부원장
198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LKEM/NHLBI)에서 연수했다. 한양대학교 의학연구지원센터장(2009~2011), 한양대학교병원 Q&A실장(2008~2013), 교육연구부장(2013~2015)을 역임했다.



이오영 한양대학교병원 기획관리실장
1987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가톨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UCLA소화기연구소에서 연수했다. 의과대학 의학과장,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장(2012~2014)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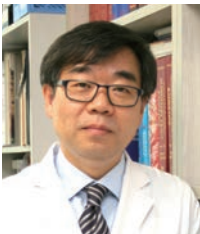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
1983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의과대학에서 연구강사를 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육연구부장(2009~2011), 부원장(2011~2015)을 역임했다.



박현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부원장
1985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Medical College of Virginia,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에서 연수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기획관리실장(2012~2015)을 역임했다.



한동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기획관리실장
1986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UNC-Chapel Hill에서 연수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육연구부장을 역임했다.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윤호주 한양대학교국제병원장
1985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예일대 내과에서 연수를 했다. 한양대학교병원 대외협력실장(2009~2011), 기획관리실장(2013~2015)을 역임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및 병원장 이취임식 개최



본원은 지난 8월 3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4·5대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및 제18·19대 한양대학교병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충기 전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 동안 교직원과 소통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보직을 내려놓고 교직원의 한 명으로 돌아가지만 항상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현 신입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병원원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책 등 의료계 상황 변화에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의료원의 전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목표를 향해 열심히 수행해 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성준 전임 병원장은 "교직원들과 단결하여 의료기관 인증 평가 등을 통과했고, 크고 작은 일들을 헤쳐 나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신입 의료원장과 병원장이 더욱 승화시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현 신입 병원장은 "인재를 육성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초빙,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병원이 진료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신뢰할 수 있는 편안한 병원으로 거듭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파중 진료자문위원 초청 특강

정파중 진료자문위원의 초청특강이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열렸다. 각각 지난 7월 23일 본관 3층 강당과 지난 8월 27일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란 주제로 임상교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파중 진료자문위원은 한양의대 2회 졸업생으로 한양대학교병원에서 20년 봉직한 이후 현재 정파중외과의원을 경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내과 개원의 연구강좌 개최



본원 내과에서는 지난 7월 4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내과의 각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내과 개원의 연구강좌를 개최했다.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가 '노년의 신장', 호흡기내과 김상헌 교수가 '잘 낫지 않는 기침의 치료', 류마티스내과 최찬범 교수가 '통풍의 최신 지견', 소화기내과 이강녕 교수가 '위식도 역류 질환', 심장내과 박진규 교수가 '부정맥의 최신 지견', 내분비내과 박정환 교수가 '당뇨병의 경구 약제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고창 흥덕 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본원은 지난 8월 4일 고창군에 위치한 흥덕 농업협동조합 2층 강당에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과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광현 병원장, 이항락 대외협력실장, 서재관 운영지원국장을 비롯, 흥덕 농협 이상겸 조합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상호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협력관계 유지, 진료 절차에 따른 편의제공 및 사전예약, 지역주민 대상 무료 진료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제10·11대 병원장 이·취임식 개최

본원은 지난 8월 3일,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제10·11대 한



양대학교구리병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경현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임기 동안 구리병원의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병원발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민 신입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대 병원장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거점대학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면서 "병원문화 혁신 운동을 통해 교직원 여러분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더 사랑 받는 병원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관신축 착공식 개최



본원 신관신축 착공식이 지난 7월 29일 신관부지에서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이영무 총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는 2017년 6월 준공예정인 신관은 별관 부지에 지하6층~지상 5층(부지면적 1,814㎡, 연면적 11,513.94㎡) 규모로 지어진다. 총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주)한양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신관은 최고의 시설을 갖춘 특성화센터로 건강검진센터, 외래진료실, 중환자실,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종량 이사장은 "신관신축을 계기로 구리병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경기 동북부지역의 의료중심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5년 6월 ~ 2015년 7월

신경외과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본원 신경외과에서는 지난 7월 4일 HIT 6층 대강당에서 한양대교구리병원 신경외과 창립 20주년 및 오석전 교수 정년퇴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의 전반부에는 “Vascular 및 Spinal Surgery”에 대한 내용으로 본원 신경외과의 과거 발자취를 돌아보고 동시에 최근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으며, 후반부에서는 오석전 교수의 지나온 발자취와 관계된 내용 및 Brain Tumor에 대한 Translational Research에 관한 내용과 최신 자견에 대해 국내 저명한 교수들이 주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장내과 김호중 교수 퇴임 기념 의국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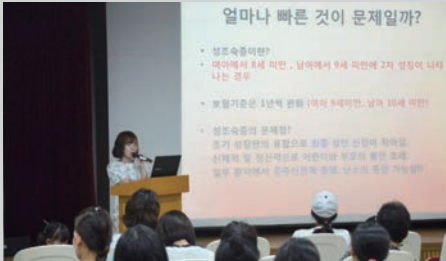


본원 내과는 지난 7월 28일,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정년퇴임을 맞은 신장내과 김호중 교수의 퇴임을 기념하며 의국행사를 치렀다. 본원 내과 교수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김 교수의 퇴임을 축하하며 기념패와 선물 증정식을 가졌다.

김자혜 교수, ‘올바른 성장 이야기’ 건강강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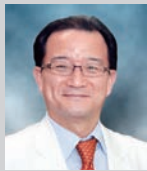
본원 소아청소년과 김자혜 교수가 지난 8월 7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홀췌 커버린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장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김자혜 교수는 정상적인 소아의 성장 패턴과 성조숙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좌에서 김 교수는 “아이의 성장속도는 최소 6개월 혹은 일



년 간격으로 정상 성장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아에서 만 8세 이전, 남아에서 만 9세 이전에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성조숙증을 보일 경우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 동정



오재원 교수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수상

한양대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가 지난 7월 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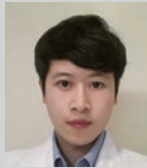
총연합회 제25차 총회에서 ‘기상변화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식물과 알레르기질환 간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으로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병로 교수
미국망막학회 영예상 수상

한양대교병원 안과 이병로 교수가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미국망막학회

(ASRS) 제33차 연례학회’에서 학술 활동과 업적, 기여도 등을 높이 평가 받아 ‘2015년도 영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일빈 전공의
석사학위 우수 논문상 수상

한양대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일빈 전공의가 최근 ‘혈액기반 유전자발현 특징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자폐스펙

트럼장애 예측하기’라는 논문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진행하는 ‘2015년 석사학위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Event



한양대교구리병원 신관신축이 더욱 의미있는 이유, 올해는 한양대교구리병원이 몇 주년 되는 해일까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의 료원 블로그(news.hyumc.com)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한양토픽]을 참고하세요. 9월 말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news.hyumc.com/?p=14030>

7+8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윤** lhy0***@naver.com
김** agnes8***@hanmail.net
김** kuku4***@naver.com
김** verhoyan***@hanmail.net
김** ekdms3***@hanmail.net
김** 2131***@hyumc.com
전** n*@kepc.co.kr
정** jjingxi2***@hanmail.net
김** hu***@daum.net
김** 2092***@hyumc.com



한양대학교병원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SBSR [언제나 청춘]/ 6월 1일/ 심근경색/ 박훈기 가정의학과 교수 KBS1R [라디오주치의]/ 6월 2일/ 오십견 운동원칙, 7월 14일/ 여성 다이어트, 6월 16일/ 팔꿈치 통증과 운동원칙, 6월 30일/ 폐질환이 있는 경우의 운동법/ 고주연 피부과 교수 KBS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월 3일/ 주사의 비밀, 7월 19일/ SBS [8시 뉴스]/ 빨간 입술 화장하는 여학생들... 피부 적신호/ 강주선 약리학교실 교수 SBS [8시 뉴스]/ 6월 3일/ 여름 얹어려 피임약 안가래? 혈전증 위험/ 김영수 신경외과 교수 SBSR [언제나 청춘]/ 6월 8일/ 뇌종양, 6월 22일/ 만성통증, KBS1TV [라디오주치의]/ 6월 28일/ 방사선치료와 방사선수술/ 윤호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6월 12일/ 다이어트에 특히 수상한 알약?/ 최동호 외과 교수 KBS1R [라디오주치의]/ 6월 16일/ 간질환/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2TV [비타민]/ 6월 17일/ 메르스 바이러스 & 호흡기질환/ 손정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MBC [뉴스데스크]/ 6월 23일/ 전국 초·중·고교 건물 70% 석면 사용/김희진 신경과 교수 KBS2TV [비타민]/ 6월 24일/ 차를 예방하는 두뇌 건강법/ 노영석 피부과 교수 MBC [기분 좋은 날]/ 6월 24일/ ‘폭염’에 대처하는 자세, KBS1TV [소비자리포트]/ 6월 26일/ 여름철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의 자격, SBS [모닝와이드]/ 7월 1일/ 대상포진보다 더 두려운 대상포진 후 신경통,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월 21일/ 대상포진 주의보/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6월 25일/ 여름철 비브리오패균을 잡아라, KBS1TV [라디오



주치의]/ 위내시경/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CBSR [웰빙 다이어리]/ 7월 9일/ 젊은 층 노리는 여름전염병 A형 간염의 모든 것/ 이영호 소아청소년과 교수 TV조선 [뉴스쇼펜]/ 7월 10일/ “학구암 러시아 소녀 돕자” 7월 20일/ 제대혈이란 무엇인가?/ 이규훈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SBSR [언제나 청춘]/ 7월 13일/ 족저근막염/ 김정은 피부과 교수 MBC [생방송 오늘아침]/ 7월 15일/ 손톱 건강 관리법/ 황경균 치과 교수 SBSR [언제나 청춘]/ 7월 20일/ 임플란트
한양대교구리병원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EBS [최고의 요리비결]/ 6월 1일/ 당뇨에 좋은 음식/ 고성호 신경과 교수 OBS [TV주치의]/ 6월 1~5일/ 뇌혈관 질환/ 문지용 호흡기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6월 5일/ 메르스 바셀린효과, KBS1R [라디오주치의]/ 6월 8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김자은 감염내과 교수 MBC [오늘 아침]/ 6월 10일/ 메르스 괴담/ 최호진 신경과 교수 SBSR [언제나 청춘]/ 6월 15일/ 차매/ 정진혁 이비인후과 교수 KBS2TV [비타민]/ 6월 17일/ 메르스 바이러스 & 호흡기질환/ 김자은 감염내과 교수 YTN [사이언스]/ 6월 18일/ 메르스 자가 격리자 가정감염/ 임한웅 안과 교수 OBS [TV주치의]/ 7월 13일/ 소아시력관리/ 조희운 안과 교수 OBS [TV주치의]/ 7월 14~17일/ 눈질환, KBS [생로병사의 비밀]/ 7월 29일/ 여름철 햇볕질환/ 김정수 피부과 교수 KBS [생로병사의 비밀]/ 7월 29일/ 여름철 햇볕질환



한양대학교병원 황환식 가정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6월 10일/ 병·의원에 활개치는 ‘비만약 각테일 처방’, 부작용은 나몰라라/ 손정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헬스조선/ 6월 24일/ 몸속 결핵균, 평소 잠 잘하다 면역력 떨어지면 활동/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7월 1일/ 잘못 먹은 음식 없는데 장염? 항생제·스트레스가 원인/ 윤호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매일경제/ 7월 6일/ 호흡기질환 중 사망률 가장 높다는 폐렴-합병증엔 치명적... 노인백신접종 필수/ 권성준 외과 교수 국민일보/ 7월 7일/ [명인&명의를 찾아서 (20)] 한양대병원 위암클리닉 권성준 교수팀 진행성 위암환자 생존율 높이기/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한국일보/ 7월 10일/ 아침 고혈압 경보... 뇌졸중·심장마비 발병 6배까지, 조선일보/ 7월 22일/ 고혈

압 낮추는 방법, 서울시 ‘30대 고혈압’ 5년 새 두 배/ 하태경 외과 교수 조선일보/ 7월 22일/ 마취 땀 위·식도도 정지... 음식물 역류하면 폐렴 위험/ 공구 병리과 교수 세계일보/ 7월 22일/ 전이성 유방암 유발 후성유전자 발견
한양대교구리병원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국민일보/ 6월 3일/ 누군가가 몹시 미워질 때, 7월 1일/ 성숙한 시민의식 실종 사건, 7월 29일/ 반항심 총량의 법칙/ 강민호 안과 교수 중앙일보/ 7월 2일/ 엄마 몰래 ‘셀프 성형’ 큰코 다쳐요/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헬스조선/ 7월 8일/ 비구름 탓에 일조량 줄면 ‘긍정 호르몬’ 감소/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서울경제/ 7월 10일/ 안장 높이부터 맞춰야 부상없이 ‘쌍쌍’/ 박예수 정형외과 교수 한국일보/ 7월 17일/ 50세 넘으면 골밀도 검사부터-1 이하는 ‘경고등’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
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
동이체(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
(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명예의 전당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만 원]



남정현 명예교수

[3,000만 원 이상]



한양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
동우회

[1,000만 원 이상]



김윤련 동문



차상훈 원장

*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5년 6월~2015년 7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500만 원 이상		박성춘	명지병원	고재성	고아비인후과의원	김진녀	본관8층	백근만	운영지원국	이승환	이비인후과
백광흠	한양대학교병원	박세정	홍도신경외과의원	공상훈	경영감사팀	김진순	중앙공급실	백은정	진단검사의학과	이양섭	원무팀
조태구	더본병원	박철완	가천대길병원	곽인영	곽아비인후과의원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백초숙	간호국 18층병동	이우식	영상의학과
		배재성	부천21세기병원	곽혜영	약제부	김창선	응급의학과	백희준	영양팀	이유경	영상의학과
		백두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곽희숙	간호국 7층병동	김태형	호흡기내과	서정원	영상의학과	이정현	성형외과
		백일서	백신경외과의원	구선완	인사총무팀	김한준	외과	설인준	소아청소년과	이정민	물류팀(의공)
		변형수	한양대학교병원	국은영	간호국 15층병동	김혁	홍부외과	성명순	사회복지팀	이정일	정형외과
		서재관	한양대학교병원	권순찬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우	신경외과	성민철	안과	이정환	산부인과
		서정기	서울복지병원	권오균	노무팀	김현욱	의료정보팀	성정순	간호국 사무실	이제인	약제팀
		송재창	부산힘찬병원	김경인	응급의학과	김현주	고객지원팀	손주현	소화기내과	이종	교육연구팀
		애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김경현	진단검사의학과	김혜원	간호국 외래간호팀	손한숙	약제팀	이종숙	진단검사의학과
		오윤식	포항우리들병원	김경화	본관11층	김화선	국제행정지원팀	송혜기	간호국 9층병동	이종숙	보험심사팀
		유태석	유태석 내과의원	김금옥	본관7층	김희숙	약제팀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이종희	본관5층
		윤영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남기	재무팀	김휘규	시설팀	신우중	마취통증의학과	이주학	신장내과
		이규석	서초21세기병원	김대성	백남심장센터	남영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신인철	약리학교실	이주한	영상의학과
		이녹영	푸른신경외과의원	김대호	정신건강의학과	노영석	피부과	신정훈	심장내과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대회	원무팀	노정환	병리과	신희숙	간호국 19층병동	이철범	홍부외과
		이상구	가천대길병원	김동훈	원무팀	문지용	호흡기내과	심경아	간호국 11층병동	이창기	교육본부부
		이상용	웅인신경외과	김명숙	간호국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심재향	명예교수	이향락	소화기센터
		이언	가천대길병원	김미혜	간호국	문혜숙	간호국 인공신장실	양정자	원무팀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이주형	누가병원		내과계중환자실	문홍상	비뇨기과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이화준	Q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김민규	외과	박기철	정형외과	염종훈	마취통증의학과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이훈경	한양신경외과의원	김민선	영양팀	박동우	영상의학과	오동훈	정신건강의학과	임상혁	영상의학과
		전형준	한양대학교병원	김법석	아침이비인후과소아과	박미라	간호국 병동팀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임원예	원목실
		정영일	김포우리병원	김봉건	방사선중앙학과	박성욱	간강관리팀	오재혁	진단검사의학과	임찬식	직업환경의학과
		정중운	일반	김봉유	원무팀	박시복	관절재활의학과	우춘미	보험심사팀	장성호	재활의학과
		정환영	일반	김신기	영상의학과	박예수	정형외과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장일현	재무팀
		채유식	서울척병원	김수연	영상의학과 MRI실	박용미	본관9층	유교상	소화기내과	장재신	인공신장실
		최규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승국	영상의학과	박용수	내분비·대사내과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장지희	고객지원팀
		최훈규	부천세종병원	김승현	신경과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유정아	영상의학과	전미선	간호국 12층병동
			우리등척추센터	김양욱	신생아중환자실	박원희	치과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전석분	중앙 공급실
		하호균	건양대학교병원	김영보	물류팀	박은재	약제부	유호선	영상의학과	전선희	간호국외과계중환자실
		한윤경	메트로병원	김영호	정형외과	박일규	진단검사의학과	윤성익	재활의학과	전우재	마취 통증의학과
		황성우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영환	핵의학과	박재우	고객지원팀	윤여필	물류팀(의공)	전현호	물류팀
		황순명	원주21세기병원	김옥중	물류팀	박정하	간호국 17층병동	윤인숙	간호국 본관20층병동	정경희	본관 6층
				김웅수	영상의학과	박종국	영상의학과	윤정화	의무기록팀	정미선	원무팀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김홍호	김용호정신건강 의학과의원	박종주	간호국 7층병동	은창수	소화기내과	정수경	간호국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우길	시설팀	박주원	의무기록팀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정재호	이비인후과
		강민호	안과	김운웅	기획팀	박지호	내과중환자실	이경식	감염관리팀	정진혁	이비인후과
		강보승	응급의학과	김은철	원무팀	박진용	시설팀	이강희	간호국 동관7층	정찬호	대외홍보팀
		강신화	간호국(수술실)	김자혜	소아청소년과	박찬남	종합검진센터	이도희	Q실	정태순	간호국 11층병동
		강영의	간호국 본관6층	김정숙	간호국 수술실	박창구	시설팀(시설)	이민자	신경과	정희숙	보험심사팀
		강오열	고객지원팀	김종현	정형외과	박태수	정형외과	이상훈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강춘희	보험심사팀	김준희	본관10층병동	박환철	심장내과	이석환	이석환 신경정신과의원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고란주	간호국 10층	김지숙	병리과	박원검	외과	이선이	간호국	조성하	물류팀
		고성호	신경과	김지은	감염내과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이숙희	간호국 16층병동	조아라	영양팀
		고아라	산부인과	김지현	약제부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이순우	회복실	조영완	인사총무팀
						배상철	류마티스내과	이슬아	간호국 11층병동	조영진	내과중환자실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조재민	조은아비인후과의원	강해영	응급의료센터	김백수	본관7층	김정은	본관11층	박경진	본관7층
조현주	의무기록팀	강혜숙	영양팀	김병숙	원무팀	김정희	영양팀	박경희	중앙공급실
조희윤	안과	고희경	본관10층	김보미	신경외과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박근배	보험심사팀
주임선	시설팀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봄	본관11층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박명경	외과
지용배	아비인후과	공지현	심장센터	김상미	본관10층	김준식	수술실	박명호	환자아송반
차경옥	간호국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상훈	약제과	김지윤	본관11층	박미숙	영양팀
채신자	임상연구지원팀	권난희	영양팀	김상희	응급의료센터	김창금	영양팀	박미순	임상연구지원팀
채영림	재무팀	권도희	제3중환자실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철한	재무팀	박미옥	교육연구팀
최근배	핵의학과	권미하	2층내과	김선영	고객지원팀	김초름	본관5층	박상혁	영양팀
최도전	본관8층	권보미	내과중환자실	김선영	영상의학과	김초름	본관6층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최미경	간호국	권산미	본관6층	김선옥	간호국 10층병동	김춘애	영양팀	박선영	고객지원팀
최민영	외과	권순주	간호국 신생아실	김선주	간호국 인공신장실	김태근	병리과	박선영	피부과
최상일	심장내과	권연희	영양팀	김신화	간호국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권영덕	마취통증의학과		심비혈관집중치료실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최준석	탐이비인후과의원	권은진	치과	김성애	간호국 17층병동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박소은	영양팀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권학천	비상계획계	김성철	병리과	김현일	외과	박수미	안과
최충혁	정형외과	권현숙	본관5층	김세훈	영상의학과	김현주	본관6층	박수정	수술실
최혁중	응급의학과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세정	본관11층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순구	안과
최호진	신경과	금나래	본관9층	김소란	본관10층	김현창	물류팀	박연희	수술실
최홍용	비뇨기과	김강미	내과중환자실	김소연	서울 본관10층	김현희	2층내과	박예진	본관8층
표주연	병리과	김경수	소화기내과	김소연	구리 본관10층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용범	원무팀
하루미	수술실	김경숙	항암제조제실	김소연	본관7층	김형석	약제팀	박유정	본관5층
한동수	소화기내과	김경실	본관5층	김소영	본관7층	김형주	약제팀	박은수	본관10층
한미경	신생아중환자실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소윤	외과	김혜리	간호국 17층병동	박은영	인공신장실
한상웅	신장내과	김경중	한양정신건강	김수미	내과중환자실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은형	고객지원팀
한장희	참조은아비인후과		의학과의원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효준	인사총무팀	박응범	비상계획계
한지홍	진단검사의학과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휘원	본관5층	박점현	본관11층
함두식	기획팀	김금례	간호국 인공신장실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하나	간호국 주사실	박정은	본관5층
허운석	분당자상정신과의원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이름	본관5층	나소정	수술실	박주는	본관8층
홍경표	인사총무팀	김기석	간호국 내시경실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나윤숙	2층 내과	박지경	영양팀
홍상모	내분비대사내과	김나영	간호국 18층병동	김양석	김포예사랑병원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지애	Q팀
홍섭	영상의학과	김남희	본관11층	김양선	간호국 인공신장실	나현영	제3중환자실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홍성권	고객지원팀	김남주	내과중환자실	김연정	재무팀	남궁정민	간호국 16층병동	박지혜	본관11층
홍은아	인사총무팀	김다솜	약제팀	김연주	2층내과	남순영	본관5층	박진옥	피부과
홍의호	핵의학과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영미	아비인후과	남희은	본관8층	박진희	항암제조제실
황세진	해부학교실	김도와	내시경실	김영선	본관5층	노광규	고객지원팀	박춘아	수술실
황윤선	병리과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영선	치과	노옥경	제3중환자실	박현정	외과계중환자실
황의순	고객지원팀	김두리	수술실	김영연	외과	노옥석	본관7층	박현혜	본관8층
황인남	의료정보팀	김란	본관5층	김영일	고객지원팀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황인자	간호국	김령	영양팀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류명숙	간호국 15층병동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김령희	부속실	김영훈	물류팀	류종백	시설팀(시설)	반은주	제3중환자실
		김명윤	산부인과	김육원	영상의학과	류현숙	마취통증의학과	방민주	제3중환자실
		김명환	영양팀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모지은	소화기내과	방성주	대외홍보팀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문미영	의무기록팀	방지훈	신경외과
		김미라	성형외과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문미영	본관8층	배순석	수술실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은지	본관10층	문상희	내과중환자실	배영주	간호국 10층병동
		김미섭	영상의학과	김은지	본관8층	문슬기	간호국 분만실	배은희	본관11층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은희	수술실	문영민	영상의학과	백필선	외과
		김미성	간호국 사무실	김인호	약제팀	문재봉	시설팀(시설)	백형정	약제팀
		김미성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지훈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문재희	본관9층	백혜연	수술실
		김미화	보험심사팀	김재희	영상의학과	문한솔	본관8층	변순현	의무기록팀
		김미희	본관7층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문희애	본관6층	서명진	주사실
		김민아	본관10층	김정례	간호국 11층병동	민세인	본관11층	서병갑	영상의학과
		김민정	수술실	김정민	본관10층	민진	신생아 중환자실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정숙	고객지원팀	민현숙	약제팀	서승희	본관9층
		김민정	신생아중환자실	김정아	본관6층	박경림	보험심사팀	서영남	본관8층
		김민희	국제병원행정지원팀	김정안	본관7층	박경미	비뇨기과	서영은	본관5층
		김민희	2층내과	김정연	본관7층	박경아	본관11층	서현주	정형외과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엄혜정	수술실	윤지선	본관6층	이은애	본관11층	정보람	본관8층	최소담	영상의학과
여미진	본관10층	윤향순	진단검사의학과	이은영	신장내과	정신주	아비인후과	최수현	응급의료센터
여은주	본관6층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은주	보험심사팀	정신희	인공신장실	최순애	간호국 인공신장실
여은주	간호국 20층병동	윤현순	고객지원팀	이은형	본관6층	정수정	본관5층	최승희	본관10층
오금복	정형외과	윤희정	인공신장실	이은희	본관5층	정애용	심장센터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오기창	중앙공급실	음희재	간호국 내시경실	이은희	간호국 인공신장실	정옥숙	약제부	최연화	본관5층
오미경	마취통증의학과	이가희	응급의료센터	이재민	마취통증의학과	정유정	간호국 17층병동	최영선	인공신장실
오미란	본관7층	이강연	원무팀	이정식	보험심사팀	정은영	수술실	최윤아	본관8층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정애	병리과	정은재	약제팀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오연이	영양과	이경철	기획팀	이정은	시설팀(통신)	정의숙	본관8층	최은영	본관8층
오영숙	고객지원팀	이경하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인	당뇨센터	정일웅	의료정보팀	최재범	기획팀
오유선	본관10층	이경희	본관11층	이정화	의무기록팀	정임증	응급의료센터	최장연	대외홍보팀
오은주	본관6층	이경희	간호국 인공신장실	이정화	신경과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최정훈	안과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이관석	인사총무팀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정정미	본관10층	최종석	영상의학과
오정님	영양팀	이규택	신경과	이정희	2층내과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최종은	보험심사팀
오정숙	본관10층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종열	치과	정지호	본관6층	최진실	본관5층
오주연	난치성신경계	이나리	본관10층	이주영	인사총무팀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최창순	간호국
	질환세포치료센터	이나영	수술실	이주현	중앙공급실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최현구	이식센터
오지현	주사실	이도영	본관5층	이주현	본관6층	정혜영	본관7층	최현미	간호국 10층병동
오진영	2층내과	이도현	수술실	이지숙	간호국 10층병동	정훈	의료정보팀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오창임	내과중환자실	이두리	제3중환자실	이지현	심장센터	조가나	외과	최혜용	고객지원팀
오홍서	진료부	이두중	핵의학과	이지혜	수술실	조경숙	간호국 인공신장실	최희숙	간호국 11층병동
오화경	수술실	이명숙	병리과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조광희	심장센터	최희영	Q팀
오희순	응급의료센터	이명주	약제팀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조구성	영상의학과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옥상열	원무팀	이미경	영양팀	이현아	본관7층	조규선	영상의학과	하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우순희	수술실	이미경	간호국 보험심사팀	이현영	본관11층	조문형	원무팀	하은영	약제팀
우정미	고객지원팀	이미란	본관6층	이현주	인공신장실	조미행	간호국 10층병동	하주현	간호국 15층병동
원혜정	부속실	이미자	본관11층	이현주	원목실	조영은	약제팀	한상운	원무팀
원홍서	인사총무팀	이미정	본관10층	이현정	영상의학과	조윙희	아비인후과	한소담	본관10층
위영현	약제팀	이미정	중앙공급실	이혜인	간호국 15층병동	조은영	영상의학과	한수진	본관10층
유고은	본관10층	이민지	본관5층	이혜정	수술실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한승희	수술실
유미화	물류팀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호남	고객지원팀	조지희	본관7층	한아영	본관6층
유병호	내과중환자실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호문	영상의학과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한주화	심장센터
유선길	건강검진센터	이상찬	인사총무팀	이호용	영상의학과	조현남	간호국 15층병동	한현남	영양과
유선정	아비인후과	이새롬	본관11층	임경순	신경외과	조현일	시설팀(시설)	한현수	의료정보팀
유숙	병리과	이서윤	본관9층	임다현	본관10층	조환영	중앙공급실	한현정	정형외과
유영미	내과중환자실	이선영	본관6층	임미란	본관10층	주찬미	본관7층	함명자	보험심사팀
유은희	2층내과	이선희	고객지원팀	임선경	본관11층	지미경	보험심사팀	함수미	응급의료센터
유정안	중앙공급실	이성모	물류팀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지은아	산부인과	함연순	외과
유정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성미	신경외과	임운식	산부인과	지현정	본관7층	허성미	외과
유주량	본관5층	이소연	신경과	임은자	아비인후과	지혜정	의료정보팀	허유비	본관7층
유지학	원무팀	이수연	시설팀(통신)	임인자	수술실	진수희	응급의료센터	허정현	심장센터
유현영	물류팀	이수진	수술실	임인현	병동서무	진춘희	영양팀	허지선	본관7층
유현주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숙	고객지원팀	임정연	시설팀(통신)	천경희	의료정보팀	허지영	2층내과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임주아	정형외과	천영복	물류팀(의공)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윤영희	재활의학과	이순자	본관5층	임지상	영양팀	천은선	외과	허효숙	소화기내과
윤미경	간호국 인공신장실	이승호	영상의학과	임지영	영양팀	최고운	본관11층	현순희	본관10층
윤미인	본관6층	이연우	본관6층	임한웅	안과	최규호	마취통증의학과	홍대영	인사총무팀
윤미현	외과	이연주	정형외과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최다을	신생아중환자실	홍민영	비뇨기과
윤선미	영양팀	이연희	본관9층	장영주	본관6층	최문정	본관5층	홍성숙	내시경실
윤선애	본관6층	이영희	신생아중환자실	장윤주	약제팀	최미옥	치과	홍숙의	병동서무
윤선희	영양팀	이영주	2층내과	장정아	간호국 인공신장실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윤아름	본관10층	이예린	아비인후과	전경신	성형외과	최서화	본관8층	홍은자	간호국 내시경실
윤원경	간호국11층병동	이유리	제3중환자실	전형수	대외홍보팀	최선경	재활의학과	홍진범	마취통증의학과
윤은정	신생아중환자실	이윤미	심장센터	전효선	수술실	최선미	간호국 인공신장실	황미향	영상의학과
윤정아	외과	이윤진	본관10층	정경은	본관5층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황성환	교육연구부
윤정희	약제팀	이은경	인사총무팀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성은	교육연구팀	황성희	본관11층
		이은영	약제팀	정대천	고객지원팀	최세연	원무팀	황영순	본관5층

성명	직장명(소속)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황주희	본관6층
황준호	의료정보팀
황해연	본관10층
황화순	시설팀(통신)
황희수	영상의학과

가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Culture Calendar

9
September



9.14 MON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20분
본관 1층 로비

10
October



10.16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전립선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증의 진단과 치료
- 비뇨기와 문홍상 교수
오후 3시/구리시 보건소 지하1층



10.24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클리닉 환우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
- 한양대학교병원 영양팀
백희준 영양사
오전 9시 30분/본관 3층 강당

9.2 WED

한양대학교병원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오후 1시 30분
성동노인종합복지관

9.4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소화기암의 예방과 치료
- 소화기내과 박찬혁 교수
오후 3시/구리시 보건소 지하1층



9.25 FRI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원요섭 색소폰 연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2 ■ 전화예약 : 1577 - 6382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창홍	월, 화, 수, 금	월	간질환
	최호순	수, 금	월	식도, 위,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세표치료센터 &클리닉▲	이오영	월, 수, 토(1주)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 화, 목	수, 금	간질환
	이항락	금, 토(3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이강녕	화, 토(2주)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원	월, 화	목,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곽주희	토	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술기세표치료,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심부전, 심혈관중재술,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증맥질환, 일반심장질환
	임영효	수, 금	수, 월,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와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박진규	박진규	월, 화, 목, 토(1주)	목	
신장내과 2290-8300	강종명	월, 화, 수, 금	화, 목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김근호	월,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심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수, 목, 토(1,2주)	월, 금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내분비대사 내과 2290-8300	박준성	화, 목, 토(3주)	월, 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최은영			
	안유현	월, 화, 수, 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웅환	최웅환	월, 화, 수, 금, 토(1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 토(3주)	월, 화, 금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4주)	수, 목, 금	일반 내분비대사 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신동호	토(3주)	화, 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윤호주	월, 수, 토(4주)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손장원	월, 화, 목, 토(2주)	금	폐결핵, 폐렴, 폐암
김상현	김상현	화, 목, 금, 토(1주)	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박동원	수	화, 수, 금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이지영	금	월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화, 목	만성혈액종양질환, 골다공증, 골수이식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이준호	이준호	월, 화, 수, 금	목	위암, 대장암, 식도암, 당도인체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설인준	화, 목	월, 수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오상희	목, 금	월, 화	소아감염질환
	김남수	월, 수, 토(3주)	목	소아심장질환
제대혈클리닉▲	이영호	월(구리), 금▲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김용주	월, 화, 수, 토(1주)	수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토(4주)	목,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자혜	김자혜		화	소아내분비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목,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http://m.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김주한	월, 수	월, 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목(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세표치료센터 &클리닉▲	김현영	수▲, 금	화,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김희진	해 외	연 수	연 수
	김영서	화, 토(1,5주)	월, 목, 금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2290-9377	오기욱	월▲, 금▲, 토(4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토(2,5주)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금, 토(2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오동훈	월, 목, 토(1,3주)	월, 목	노인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일반정신과질환
이동준	조성진	목	목	소아정신의학
	월	수	수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목	월, 목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화, 금, 토(2,4주)	수, 목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
	김정은	월, 수, 토(1,3주)	화, 금	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수	위, 십이지장질환
	권오정	월	목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수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최동호	수, 목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수, 목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만성	목, 토(2주)	월(백내장)▲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하태경	하태경	월, 화, 토(1주)	목	복강경/로봇수술, 비대사질환, 복강경수술
	안병규	월, 토(3주)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이주희	이주희	토(4,5주)	월, 금	위암, 상부위장관, 복강경로봇
				외과질환 및 탈장수술, 비만대사
				일반 외과질환
최승혁	최승혁	수	수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화, 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월,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김혜선	김혜선	월, 수, 금		일반 흉부외과 질환
정형외과 2290-8473	김태승	토	월, 목	사지근골격계종양 클리닉, 소아정형외과학
	이광현	월, 수, 금	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병,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월, 수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화,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김이석	목	화, 목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금	금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진규	이진규	목, 토	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31 - 560 - 2114 ■ 응급실 : 031 - 560 - 2050 ■ 전화예약 : 1577 - 9382 ■ 진료의뢰센터 : 031 - 560 - 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화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김영수	화	화, 목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수종양
	백광홍 이형중	월, 수 목	금 화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수종양
	전형준	금, 토(2주)	수	일반 신경외과 질환
	한명훈 정재우	토(1주) 토(3주)	금 목	일반 신경외과 질환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및성형, 선천성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정태	월, 금	수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윤진호 김연환	월, 수 화, 목, 토(매주)	화, 금 화, 목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인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고), 알비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화, 수, 목, 금	월, 화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술관아기
	최중섭	월, 수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목, 금, 토(2,4주)	화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안과 2290-8570	엄기방	월, 수	금	녹내장, 백내장
	이병로	화, 목, 토(3주)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송인석	금, 토(1,3주)	월, 화, 금	일반 안과질환, 외안부, 각막, 콘택트렌즈, 백내장
	임한웅 이주향	금 토(2,4주)	월, 수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형, 눈물샘, 미숙아망막, 사시, 기타 안과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화, 금, 토(3주)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화, 토(1주)	화, 금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목, 토(4주)	월,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성인속	월, 금, 토(5주)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일반 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비뇨기과 2290-8593	이춘용	월, 토(1주)	화, 목	비뇨기종양,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박해영	수, 금, 토(2주)	월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김용태	화, 목, 토(4주)	수, 금	비뇨기에,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박성원	해 외	연 수	전립선질환, 신결석, 배뇨장애, 방광염, 일반비뇨기과질환
	이호원	월, 목, 토(3,5주)	금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김태곤	화, 목, 토(1,5주) 월▲	화,목(1,3주),금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 재활, 척추손상 재활 루게릭클리닉(서관 7층 세포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금	월~금	방사선종양학
	박해진	월~금	월~금	방사선종양학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김지영	토(2,5주)	월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목,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턱알골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가정의학과 2290-8738	박창주	월, 수, 목	월, 수	턱알골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행법
	한지영	월~금	월, 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임재중	월~금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김태건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보존치료, 심마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전재윤	금	목, 금	악교정수술,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구강내소수술, 사랑니발치
	심광섭	월, 화, 금	수	턱알골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화, 수, 목	건강증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월, 화(2,4주), 목 화(1,3,5주),수, 금	월, 화(2,4주), 목 화(1,3,5주),수, 금
이수진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선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1주)	목,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 목, 토(2주)	월, 화, 목	강직성척추염, 척추관절염
	성윤경 최찬범	월, 화, 수, 금, 토(3주) 월, 수, 금, 토(3주)	수 수,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베체트병, 건선관절염
	조수경 이 승	월, 수, 목, 토(2주) 화	월, 목 수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손일웅	월, 토(2주)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송승택	수, 토(1주)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이성원	토(3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정혜진	금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이규훈	수, 금, 토(3주) 월, 화, 목, 토(1주)	월, 수 화, 목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종혁		월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이봉근 이진규	목 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RS)	윤호주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정현	화 월~금, 토(2,4주) 월, 화, 목, 금	월, 화, 수 화, 수 월, 목 목, 금	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 뇌종양, 척추질환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가정의학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수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정태 김연환	월, 목 화, 금	수, 금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인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고),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 2015년 9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560-2219	손주현	화	월, 목	각종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대장질환(만성궤양성 대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소화기, 위장관질환
	유고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심장내과 560-2220	박찬혁	목, 토(1,5주)	수,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정재윤	수, 목	화, 금	간질환
	송준석		목	소화기
	최원석		화	소화기
	김원중		월	소화기
심장내과 560-2220	김소길	월, 화, 금	목	임상심장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최성일	목	월, 수, 금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박한철	수, 목, 토(1주)	화	고혈압, 부정맥질환
	신정훈	토(2,4주)	월, 화, 목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신장내과 560-2220	한상용	월, 수, 금	화, 목	만성콩팥병, 고혈압, 혈뇨, 신장염
	이주학	화, 목, 토(1,2주)	수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고혈압
	이은영	토(4,5주)	월, 금	만성콩팥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내분비내과 560-2220	박용수	월, 금, 토(4주)	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이창범	수, 목, 토(1,2주)	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홍상모	월, 화, 토(5주)	월, 수,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일반내분비
류마티스내과 560-2220 맞춤클리닉▲	이혜순	월, 수, 토(3주)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방소영	화, 목, 금, 토(2,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베체트병, 만성통증
	이상원		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베체트병, 만성통증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560-2220	김태형	월, 수, 토(1주)	화, 목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문지용	화, 목, 금, 토(2,4주)	월	만성기침, 호흡기관, 천식, COPD, 결핵, 폐암
혈액종양내과 560-2220	최정혜	화, 목, 토(2,4주)	월, 수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원영옥	월, 수, 금, 토(1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감염내과 560-2220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560-2250	김창렬	화, 수, 금, 토(5주)	화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오재원	화, 목	월, 목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수, 금, 토(1주)	월, 수	소아신경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지혜 최영진	수, 토(4주) 월, 목, 토(2주)	수, 목, 금 화,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신경과 560-2260	이영주	화, 금	화, 목, 금	소아호흡기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목	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수, 목	월,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오경필	월, 화, 목, 토 화, 수	목 금	치매, 뇌졸중, 두통 말초혈관질환, 손발저림, 어지럼증, 두통
정신건강 의학과 560-2270	박용천	월, 화,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김대호	화, 금, 토(1주)	화, 수, 목, 금	PTSD, 불안장애, EMDR
	최준호	월, 수, 금, 토(2,4주)	수	신경영상학, 정신분열증, 조울증
	김충현	월, 금, 토(4주)	수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김재민	수, 목, 토(2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신경외과 560-2320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척추질환, 척수종양, 두부외상
정신건강 의학과 560-2320	정진환	월, 토(1주)	화, 목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류재일	화, 수, 토(5주)	금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김현우		월, 수	척추질환, 척수종양, 두부외상
흉부외과 560-2300	이철범	월, 목	월	폐질환, 식도질환, 흉부외상
	노선균	화	화, 수, 목	심장질환, 대동맥 및 혈관질환
	남승혁	수, 금	금	폐질환, 다한증, 흉강경수술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560-2310	김영호	월, 수, 금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교관절 및 슬관절)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스포츠의학 관절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무릎관절염, 스포츠손상 (인공관절, 관절경수술)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골수염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박태수	화, 목	월, 목	
	박예수	수, 금, 토(1주)	월	
	김종현	목, 토(2주)	화, 수	
	박기철	화, 토(4주)	목, 금	
이정일	월, 토(5주)	화, 금		
산부인과 560-2340	김승룡	수	월, 수	내시경수술, 불임, 부인질환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내시경수술, 부인종양
	이정환	수, 월, 목, 금	목	
성형외과 560-2330	고이란	화	화, 금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악안면 및 미용성형 일반 성형외과질환 일반 성형외과질환
	최승석	월, 금	수	
	이장현	화, 목, 토	수	
	류재만	수	화, 금	
	장정우	수, 월, 금	화, 월, 금	
외과 560-2290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병, 유방암, 갑상선질환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간담체질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유방, 갑상선질환 대장항문병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박현경	목	화	
	김한준	화, 금, 토(4주)	목	
	김만규	화, 토(1,5주)	수, 금	
	최민영	금, 목, 토(2주)	수, 월, 화	
안과 560-2350	윤정아	수, 월, 화	수, 월, 화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 굴절, 백내장 안성형, 사시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김현일	수, 월, 화	수, 월, 화	
	조희운	화, 목	목	
	성민철	수, 금	월, 수	
	강민호	월, 토(1,5주)	화, 금	
피부과 560-2280	임한웅	수, 토(1주)	화, 목, 금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일반 피부과질환, 피부미용
	신용운	월, 금, 토(2,4주)	월, 수	
	유희준	월, 화, 금	화, 목	
	김정수	수, 목, 토	월, 수	
	이정우	화	수, 금	
이비인후과 560-2360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부비동염, 비종격 및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비부비동내시경, 비종격 만족증, 알레르기비염, 일반·소아·이비인후과 소아 및 일반이비인후과
	정진혁	화, 토(5주)	화, 금	
	지용배	월, 수, 토(2주)	수	
	정재호	목, 금, 토(1주)	월, 수	
	조용희	화, 금, 토	금	
비뇨기과 560-2370	유한석	토(4주)	월, 화, 목	
재활의학과 560-2380 맞춤클리닉▲	최홍용	화, 목	목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 종양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문홍상	수	월, 수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김규식	월, 금, 토(2,4,5주)	화, 금	
	장성호	월, 금	월, 수	
치과 560-2660	조형필	화, 목	월, 수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두통, 어깨통증 만성통증/목, 허리, 어깨, 무릎 및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재활, 척추손상, 재활, 스포츠 의학
	장성호	월, 금	월, 수	
	조형필	화, 목	화, 금	
	심재환	월, 수, 금	월, 금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1,5주)	수	
통증클리닉 560-2095	김운영	화, 금, 토(2,4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오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김운영	화, 금, 토(2,4주)	월, 화, 목, 금	
해악학과 560-2730	김영환		화	종양해악학

한양대학교병원

수술도, 진료도 앞서나갑니다

적정성·진료량 평가, 각 분야 '1등급'



한양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한 적정성 평가와 진료량 평가에서 유방암, 대장암, 폐암, 위암, 간암, 췌장암, 고관절치환술 분야 1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대장암에서는 3년 연속, 유방암은 2년 연속으로 1등급을 받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최신 의료 설비의 도입을 통해 믿고 오실 수 있는 '수술 잘 하는 병원'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